

신년특집

## 순천향인, 우리는 누구인가!

‘뇌졸중’치료 적정성평가 단연 순천향  
희망재활 만드는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노화 억제하는 세스트린 신호전달체계 발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C O N T E N T S

통합 의료원보 Vol. 3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표지설명

2016년 새해를 맞아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산하 4개병원 건물을  
2016으로 형상화하여 의료진의 환우들에 대한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작가·박승희



## Feature

- 02 **신년사**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김부성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서울병원 병원장, 이문성 부천병원 병원장  
                                 이문수 천안병원 병원장, 박래경 구미병원 병원장
- 08 **Special 1**                2011-2015 설문조사 분석
- 12 **Special 2**                캄보디아 중국과 업무협약 체결
- 14 **Special 3**                감동스토리\_ '나를 살린 순천향'
- 16 **Issue 1**                   뇌졸중 치료 적정성 평가 1등급
- 18 **Issue 2**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 20 **Focus 1**                  천안병원, 고객감동프로젝트로 2016
- 22 **Focus 2**                  서울병원, 황열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 지정

## Confidence

- 24 **History**                   후학·지인들, 서석조 박사를 말하다
- 26 **Special Family**        권순희 고객지원팀 사원
- 28 **Field**                     병원 24시\_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 32 **Doctor**                    이정재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장
- 34 **New Medicine 1**        단일절개 흉강경수술
- 36 **New Medicine 2**        노화 억제하는 세스트린 신호전달체계 발견
- 38 **New Medicine 3**        부천병원 김범태 교수, 특허 등록 화제
- 40 **Knowledge 1**            파킨슨병, 올바른 정보 필요
- 41 **Knowledge 2**            금연클리닉
- 42 **Knowledge 3**            '통풍'
- 43 **Knowledge 4**            '절차기억'
- 44 **Visit**                    박찬옥 대전속편한내과 원장
- 46 **OB news**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 47 **Food Column**         박태균 기자의 푸드 & 메드

## Communion

- 48 **Essay**                    순천향책동네\_〈김광석과 철학하기〉
- 50 **Travel**                   김진국 교수의 경기 예찬

## Communication

- 52 **News**                    순천향 뉴스
- 57 **Schedule**                진료 일정표
- 59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 〈순천향〉 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TEL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 새해 아침에

창문을 열고 겨울에도 돌아나는  
밤새 내린 흰 눈을 바라볼 때의 내 가슴 속 푸른 잔디 위에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노란 민들레 한 송이로  
사랑아 네가 앉아 웃고 있다  
새해 아침에도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나는 제일 먼저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아  
네가 보고 싶다 세상에 너 없이는  
늘 함께 있으면서도 희망도 없다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으로 새해도 없다  
네가 보고 싶다  
새해에도 너와 함께 내 영혼 나비처럼  
긴 여행을 떠나고 네 안에서 접힐 때  
가장 정직한 시를 쓰고 나의 새해는 비로소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색동의 설빔을 차려 입는다  
내 목은 날들의 슬픔도  
내가 어둠이어도 새 연두 저고리에  
빛으로 오는 사랑아 자줏빛 끝동을 단다  
말은 필요 없어 아름다운 사랑아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글\_이혜인(시인)

Happy  
New  
Year

2016

신년사

언제나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 사랑입니다

본지 <순천향>에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순천향 설립 정신인 '하늘 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한다'는 명제를 실현하기위한 방안을,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이사장,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장 등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다짐을 들어봅니다.

## “순천향의 ‘유니크’는 순천향인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았습니다. 붉은 원숭이는 영리할 뿐 아니라 진취적 리더십, 적극적인 기운이 강하게 돌고 있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향도 붉은 원숭이의 영민하고 진취적인 기운을 받아 스마트하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료원 산하 병원은 올해 정말 뭔가 잘될 것 같은 대운의 예감이 듭니다. 이유는 지난해 발생했던 메르스사태와 의료원의 전산고도화 사업 등 도전과 위기들을 정말 슬기롭게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천향의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믿음직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게다가 우리 순천향에는 타 병원과 다른 유니크한 특별함이 있는데 올해 그 특별한 다름이 큰 가치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총장 선거에 나서면서 유니크 순천향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가 가진 가치를 극대화해서 우리의 가장 큰 재산으로 만들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니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Better is not enough, try to be different”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달라야 하고 유니크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를 수천 년 전에 동양의 손무라는 사람이 손자방법에서 전쟁의 기본전략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름 하여 기정전략입니다. 애플을 예로 들면 이 회사의 정(正)은 좋은 컴퓨터를 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기(奇) 즉, 디자인이나 편리성 같은 남과 다른 전략을 더해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正)을 잘하면 원래해야 하는 일을 남보다 잘하면 그중 제일 잘한다는 The best라 부르고, 기(奇)는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것을 잘하는 것으로 놀랍다는 Unique라고 부르게 됩니다.

병원으로 치면 병원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정(正)이라 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일을 다른 병원만큼 잘하면서 추가로 유니크한 것이 있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요즘 세상에는 유니크해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남들이 기억하게 할 수 있냐고 여쭙보니 FOB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FOB는 각각 The First, The Only, The Best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억에 남게 하려면 The First(누구보다 먼저 주든지), The Only(다른 선물과 다른 특이한 것을 주든지), 아니면 The Best(제일 좋고 비싼 것을 주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FOB(The First, The Only, The Best)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유니크해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직종의 순천향 가족들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요즘 진료도 다학제 진료를 권장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따라 차별화된 유니크한 치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나눔과 융합이 창조 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화합과 신뢰, 그야말로 유니크한 문화입니다.

창의는 머리 좋은 특정인의 아이디어의 소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벽을 넘고 말겠다는 도전의식과 자기투쟁의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토론과 집단지성에 의해 끌어 올릴 수 있는 성과물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순천향 가족들이 우리의 강점인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우리 병원을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병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병원의 전 가족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매진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미래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봉사는 반드시 인정받고 큰 축복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올 해 우리 병원의 도약과 전진, 순천향 가족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1월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



## 신뢰와 사랑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교직원 여러분, 동녘 하늘이 밝아오고 새벽에 첫닭이 울면서 우리는 모두 희망에 찬 2016년 병신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 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사랑,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타 의료기관보다 더욱 약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격변 속에서도 순천향 중앙의료원의 내실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된 힘과 40년의 저력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의연히 대처하고 꾸준한 성실함으로 발전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다사다난함을 반추해볼 여지도 없이 온난화 현상의 대기와는 반대로 매서운 한파처럼 몰아닥친 한국의 경제위기와 의료계의 불황으로 안개 경제 속에서 충격과 혼돈의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어제의 사고와 어제의 행동과 어제의 방향이 아닌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방향이 요청되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를 벗어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교직원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 신의와 명예와 생사를 걸면서 지혜와 희생을 분담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이념을 철저히 실천하는 헌신적이고 사랑에 찬 참된 의료의 장이 되도록 친절과 의료봉사에 주력합니다. 이로써 불안한 지역사회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차별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의료원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각각 병원의 전문성을 살려 특성화를 조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병원의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지원 분야를 병원별로 2~3개씩 설정하고 다수

과의 협진체계를 기초로 하는 센터화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최첨단 장비에 의존하는 기술적인 의료에만 치중하지 말고 더불어 신뢰와 사랑을 갖춘 따뜻하고 편안한 병원, 이웃 같은 병원,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들은 강한 자기비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지향하는 건강한 조직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거품 없는 진실과 사랑을 키우는 인고의 시간 속에서도 보람을 증대하고 우리 기관이 지닌 조직문화의 보화를 재발견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의 비전을 확고히 설정하여 지혜로운 극복의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어둠은 있을지라도 좌절과 실망은 없습니다. 경험하며 깨닫는 우리 민족의 현실 대처능력과 5천년 역사 속에서 대물림 받은 끈기와 투지와 열성을 다하여 깨어나고 또 깨어나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내어 병신년의 새로운 한 해를 즐기롭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교직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사랑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순천향의료원 가족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금년부터 중앙의료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부성 이사장님, 서교일 총장님, 산하병원 병원장님, 순천향 중앙의료원 교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료원과 각 병원의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께서도 상생의 노사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향 중앙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우리 의료원은 3,000여 병상과 5,000여명의 교직원들로 구성된 4개의 대학교 부속병원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자부하며, 설립 40주년을 넘어 세계를 향한 제2의 도약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합 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보다 정확하고 정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의료원의 경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해는 시급한 현안인 SJ-III 체계의 구축 일정이 차질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성실한 협조를 통한 실천 의지입니다. 의료원에서도 시스템의 안정화와 유지, 보안,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앙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산하병원 간 정보의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받는 의료원'으로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산하병원 기획업무 보직자 회의를 정례화 하여 병원 간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모색하고 경쟁과 협동의 순기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의료원의 기능 역시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앙의료원 조직발전 연구용역을 통하여, 의료원 기능을 검토,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경영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급

변하는 의료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병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영비전인 '인간사랑의 나눔교육을 실현하는 새순천향 2015'의 발전전략 일환인 글로벌(Glocal) 경쟁력을 갖는 대학병원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의료원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화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의료원장으로서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인간사랑 정신이 순천향인의 소명이라면,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인화, 단결하여 우리 의료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사랑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서로 간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요, 전제가 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등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대립과 불신에서 벗어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직과 개인의 가치를 공유해 나갑시다.

끝으로 올 해는 특별히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원숭이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진취적 리더십, 적극적인 기운이 강하게 들고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순천향도 올 한 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황경호**



안전한 진료,  
고품질 진료,  
환자 만족,  
고가치 진료 실현



높아진 위상으로  
'작지만 강한 순천향'을  
만듭시다!

최고 위기의 해로 예상한 2015년에는 '경영 효율과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 환자경험 중심 서비스'를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일상화한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1월에는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변전시설 교체, 교직원 식당 오픈, 외관 리모델링 등 우리 병원 개원 이래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과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월의 메르스 사태에도 모든 교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11월에는 개원 이래 최고의 변화라 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SU-III를 성공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끝없는 도전과 시련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저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병원은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더 안전하고 더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의 상징인 피닉스처럼 과거의 모습을 불같이 태워 버리고 새로운 순천향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2016년 우리의 의료수익 목표는 월 180억 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향후 2년간은 모든 병원의 경영과 활동을 '안전한 진료, 고품질 진료, 환자 만족 진료, 고부가가치 진료'에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개혁, 혁신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모두의 TFT에도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물들, 계속 도출해 내 주실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순천향의 자부심이라는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전한 진료, 고품질 진료, 환자만족 진료, 고부가가치 진료'를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서유성**

지난해 SU-III 오픈과 연이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덕분에 우리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우리의 VISION 2020인 '서부권 최고의 중증 환자 진료기관'을 향해 크게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10년에 'VISION 2020' 선포식을 가진 후, 어느새 전반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급종합병원 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등, VISION 2020 달성을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해왔습니다. 올해는 VISION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하반기 5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관 응급실 증축 및 리노베이션을 6월까지 마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픈하고, 외래 진료실을 재정비하여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하는 외래 진료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부천시·시흥시를 아우르는 인구 417만 명의 인천 권역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3월부터 약 30개월간 본관 병동 리노베이션 공사를 통해 더욱 쾌적한 병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해 다소 어수선하고 불편하겠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시적 진통으로 생각하고 전 직원이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리노베이션 기간에는 병상 수가 많게는 90병상 이상, 평균 60병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많은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직원은 적극적인 의견 소통, 신속한 업무 처리, 긴밀한 상호 협력 등 한마음으로 단결해 병실 운영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병상 수가 줄어들어 규모는 더 작아지지만, 우리는 모두 각기 최선을 다하고 합심하여, 더욱 Smart하고 더욱 Speedy한, 또 더욱 Strong해진 '작지만 강한 순천향'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병원장 **이문성**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매는  
해현경장(解絃更張)의 마음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대와 희망의 벅찬 가슴으로 순천향 가족여러분과 함께 2016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과정을 만듭니다.” 위대한 목표는 ‘2020 창조적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이라는 우리의 비전에 오롯이 배어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비전이 액자 속에 갇혀있는 글귀가 아닌 살아 숨쉬며 꿈틀대는 동력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첫 과정이 6년간 이어진 고객만족프로젝트이며, 우리의 문화는 진정한 고객중심의 문화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대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2016년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고객감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뛰어난 의술도, 아무리 좋은 장비나 시설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감동까지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사랑과 따뜻함이 우려낸 배려가 고객의 가슴 한 복판을 관통할 때 고객감동이 일어납니다. 고객감동프로젝트의 창조적인 시작과 성공을 위해 순천향 가족여러분 모두 적극 참여해주시고 각자의 지혜와 열정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또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의 완성을 위해 준비한 새병원 건립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원래의 계획보다 약간 일정이 늦춰졌지만 모든 행정작업이 완료되었고, 드디어 본격적인 착공 준비를 시작합니다.

옛말에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맨다’는 뜻으로 ‘해현경장(解絃更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고,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새해는 해현경장(解絃更張)의 마음으로 환자분들에게 감동의 기억을 선사하고, 중부권 최종 거점 병원, 한국의 메이오클리닉을 건립하는 기틀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순천향 가족임이 자랑스러운 병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병원’을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위대한 목표를 향한 순천향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병원장 겸 부속병원 관리원장 **이문수**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으로  
순천향의 품격을 높여  
갑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병신년 벽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재치있는 원숭이처럼 2016년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구미병원은 지방병원이라는 핸디캡과 메르스의 위기 속에서도 의료진 보강, 친환경병원 추진, 응급의료센터 확장을 이루며 병원의 성장기반과 가능성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향상을 최우선으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서 2016년 구미병원은 ‘질적 경쟁우위 확보’, ‘운영체제 효율성 강화’, ‘소통의 조직문화’, ‘이노베이션 활성화’ 4가지 운영 목표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5월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준비에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진료환경이 개선되고 다시 한번 경북권 중추 의료기관임을 확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다함께 만들어 봅시다.

올 1월 순천향중앙의료원 핵심사업인 차세대통합의료정보시스템 SU-III 프로젝트가 구미병원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병원의 모든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혁신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치료와 병원발전이라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자유로운 소통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작지만 강한 힘 ‘디테일’이 강조됩니다. 변화에 앞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성찰해야 하며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1% 실수가 100% 실패를 부르며, 디테일 한 것이 모여 위대한 성과를 이루듯, 작은 일들에 충실하면 우리가 꿈꾸는 순천향, 순천향의 품격을 높여 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순천향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병원장 **박래경**

# 순천향인, 우리는 누구일까



2011년부터 매년 연초에 발표해온 순천향인 설문조사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던 순천향인들의 일상생활과 내면을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경제, 사회, 소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통해서 어렵게나마 순천향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2016년에는 지난 5년간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순천향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좀 더 다각도로 정리해보기로 했다.

## 건강관리 비법은 '걷기',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

### 01 순천향인들의 건강관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순천향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모두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하며 걷고, 계단도 걸어 오르내리고, 아침에 운동장 20바퀴를 빠르게 걷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걷기 다음으로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운동지침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꼽았다. 그 밖의 운동으로는 남성 비중이 높은 의사들의 경우 근력 운동과 달리기를 주로 했으며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스트레칭과 체조를 많이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108배와 보드, 스쿼시, 마음운동(수양), 훌라후프 등의 답도 있었다.

건강을 위한 식생활로는 의사들은 적게 먹는 소식(小食, 17.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소 듬뿍 먹기가 그 다음 순이었다. 간호사들은 양보다는 질이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채식(22.5%)과 규칙적인 식사(17.4%)였다. 야간 근무가 많은 직업 특성상 군것질과 야식, 패스트푸드를 안 먹는 것(13.8%)도 간호사들의 당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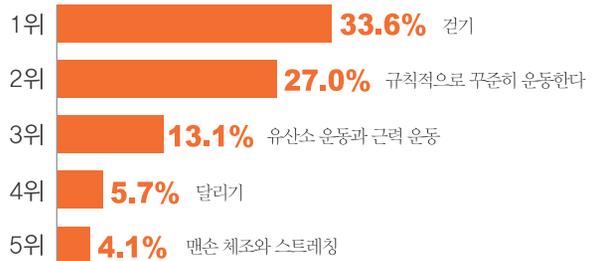
#### 건강 위해 비타민, 홍삼 즐겨 먹어

순천향 의사들이 선호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는 비타민제(48.5%)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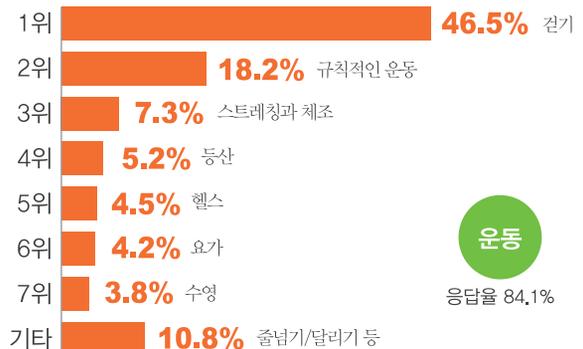
#### 순천향 의사, 간호사들의 건강 관리법

2011, 2012년 설문조사

##### Doctor's 운동



##### 순천향 간호사들은 어떤 운동을 하나



운동

응답율 84.1%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비타민의 종류로는 종합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B 등이 꼽혔으며, 비타민 다음으로는 홍삼을 비롯한 인삼류 (15.5%), 오메가3(5.2%), 칼슘(2.5%), 단백질(1.8%) 순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건강보조식품도 역시 비타민(54.2%)과 홍삼(8.8%)이었다. 응답 중에는 '역시 밥이 보약이라는 응답'과 건강식은 먹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비타민과 홍삼에 이어 각종 영양제(4.6%)와 오메가3(2.1%)가 뒤를 이었고, 이 밖에도 블루베리, 글루코사민, 배즙, 양파즙, 민들레 추출액, 녹즙, 철분제, 칼슘제, 혈액순환 개선제, 알로에 등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다.

순천향 간호사들의 눈에 비친 의사들은 어떤 모습일까? 순천향 간호사들은 환자와 간호사들에게 '친절한 의사'(25.2%)와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20.5%)를 좋아했다. 반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감정 기복이 심한 의사'(48.7%), '불성실하고 교감 못하는 의사'(17.3%)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받은 선물 중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37.3%)라고 응답했다. 임종하는 환자가 남기고 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퇴원하며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던 한마디는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마음속 비타민이 되어 주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20.4%)도 간호사들에겐 잊지 못할 선물이다. 때로는 손수 만든(12.0%) 볼펜과 수세미, 한지로 만든 지갑과 스카프 등도 거절하지 못하는 정성이 가득 담긴 잊지 못할 선물들도 있었다. 이 밖에도 직접 담근 김치나 오징어 같은 특산물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께서 속치마에서 꼬깃꼬깃 지폐를 꺼내 쥐어주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 저축으로 재미보고 펀드로 날려



해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 순천향인들의 가정 경제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2014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그 생각의 일면을 살짝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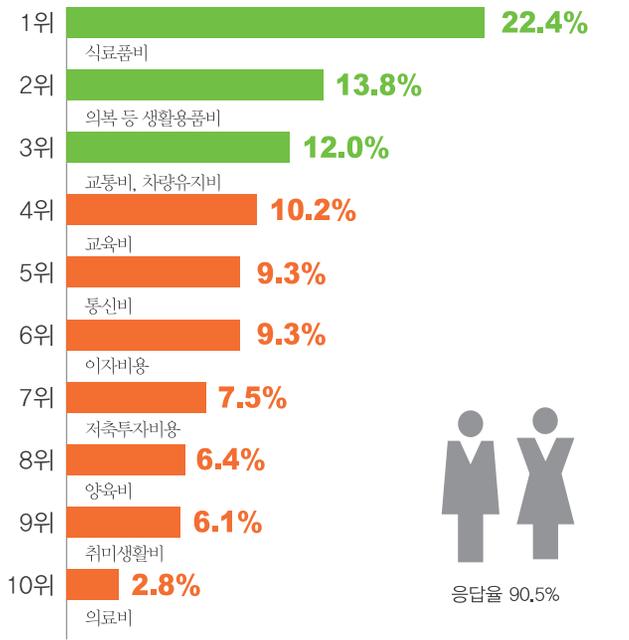
순천향인들은 가정의 '경제 대통령'을 묻는 질문에 '나, 본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9%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83.9%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가정의 '경제 대통령' 역시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년이 지난 지금, 가정의 '경제 대통령'들은 과연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을까? 아니면 '정권 교체'나 '쿠데타'의 위기에 빠져 있지 않을까?

순천향인들이 매일 지출하는 용돈 금액은 50만~90만 원이 32.9%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7%가 '비상금이란 없다'고 대답했다.

지출 항목에서는 직업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식료품비(22.4%)였다.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까? 반면 의료비(2.8%)는 10위로 나타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뭘까

2014년 설문조사



응답율 90.5%

###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은 부동산!

순천향인에게는 과연 얼마큼의 돈이 필요할까?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3천만~5천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마음의 빚을 덜기 위해 필요한 돈의 규모는 대략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차이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 대 이상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부동산! 이사를 하거나 개보수를 하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고, 전세자금 5천만 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돈 1억~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순천향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저축(31.4%)인 반면, 최악의 투자는 펀드(18.8%)라고 답했다. 순천향인에게 가정 경제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23.1%가 어머니나 아버지, 언니나 이모 등 친인척을 꼽았다. 먼 데 있는 달인보다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을 멘토로 삼겠다는 생활 경제 인식의 변환일까?

## 절반이 사회봉사 참여, 연 1회 10만원 기부



순천향인들은 사회봉사활동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 201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향인들의 절반가량인 49.1%가 매년 사회봉사를 하는 것을 나타냈다. 공식적인 통계로 비교하긴 매우 어렵지만 일반적인 사회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만은 틀림없다.

응답자 중 매년 1회 사회봉사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8.8%이며 2회는 11.8%, 3회 5.2%, 4회 2.4%로 점차 줄어들다가 매년 12회씩 봉사를 한다고 답한 부분에서 4.2%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3회 이상 36회까지 한다는 응답도 1.5%를 차지했다.

금액은 연 10만 원 정도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를 기부하는 셈이다. 봉사활동으로는 응답 결과 국내 성금 기부를 한다는 응답이 33.6%로 나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의료기관의 특성상 의료 봉사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17.3%로 두 번째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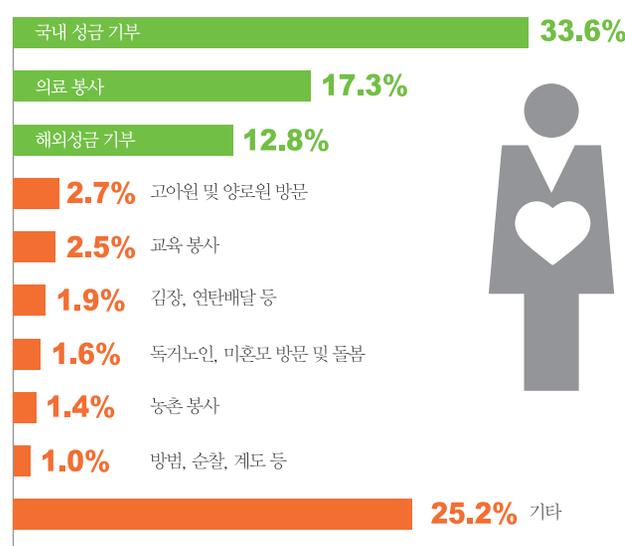
### 월 1만 원, 정기적으로 단체에 기부

기부금액은 매월 1만 원 꼴인 연 10만 원 이상(51.0%)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50만 원 이상(12.5%), 100만 원 이상(7.2%), 200만 원 이상(2.4%), 500만 원 이상(2.4%)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 물품은 의류, 신발, 학용품, 떡, 신생아용품과 아이 옷, 책, 장난감, 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해외 성금 기부, 고아원과 양로원 방문, 교육봉사, 김장과 연탄 배달하기, 독거노인, 미혼모 방문과 돌보기, 농촌봉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인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59%가 정기적으로

### 순천향병원인의 봉사활동 유형은? 2015년 설문조사



각종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외부 후원단체로는 유니세프(13: 응답자 수), 굿네이버스(12), 월드비전(10), 세이브더칠드런(7) 순이었다. 내부 후원단체로는 순천향나눔회(17), 한컴봉사회(8), 밀알장학회(4) 등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경없는의사회, 아름다운가게, 호스피스, 햇살아이, 한국컴패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다음희망모금, 네이버콩 등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후원금액은 매월 5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월 1만 원이 가장 많았다.

# 04

순천향인들의  
위시리스트는?

## 소망은 '건강', 받고 싶은 것은 '현금'

순천향인들의 위시리스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 해가 바뀔 때마다 소망들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2013년 설문조사에서 순천향인들의 의료계 종사자답게 건강하고 아프지 말기(33.6%)를 새해 최고 소망으로 꼽았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마 이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는 제주도(13.0%)가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10.1%)이 그 뒤를 이었다. 3위는 올릉도, 4위는 스위스였으며 독도와 스페인이 공동으로 5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섬, 해외로는 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장 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돈' 최고라고 응답해 현금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미혼 여성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명품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으며, 자동차(3.9%), 남자친구(3.3%)를 받고 싶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긴~휴가, 스마트폰, 여행, 제2병원, 시계 등의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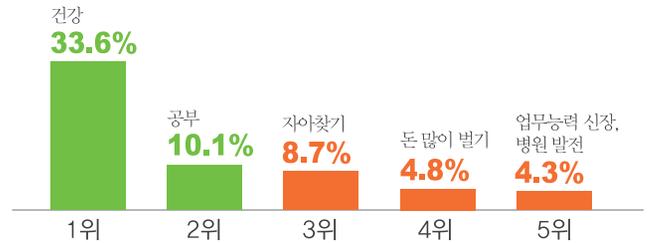
순천향인이 업무 중에 힘들고 피곤할 때, 또는 힘나고 신날 때는 언제일까? 의외로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에 힘도 나고 피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가 가장 고마울 때는 당연 '나의 일을 도와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웃으며 반갑게 인사할 때 △간식을 챙겨줄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와줄 때 △경조사를 잘 챙길 때 △휴가 바뀔 때 △위로의 한마디 △'힘내세요' 위로할 때 △전화를 대신 받아줄 때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서로 안부를 챙길 때 △부족함을 채워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서로 앞 다 뛰어서 자기 일처럼 해줄 때 등도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했다.

### 최고의 '자양강장제'는 칭찬과 격려

근무 중 동료나 업무 때문에 힘든 경우는 언제일까? △과다 업무 △바쁘지 않을 때 △직원들 간 서로 책임을 회피할 때 △끊임없는 신규 환자 △3교대 근무 △회합의 부재 △자기중심적인 사람 △오프 후 데이 출근 △비슷한 상황의 반복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 이른 출근 시간 △수술 많을 때 △무한한 결재라인 △갖은 인터폰 △바쁘는데 서로 자기부터 해달라고 할 때 △노력해도 안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위압적인 사람 △반말하거나 개념 없는 의사들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 △불통환자 보호자 등 많은 일 속에서 의사소통이 없을 때 더욱 힘들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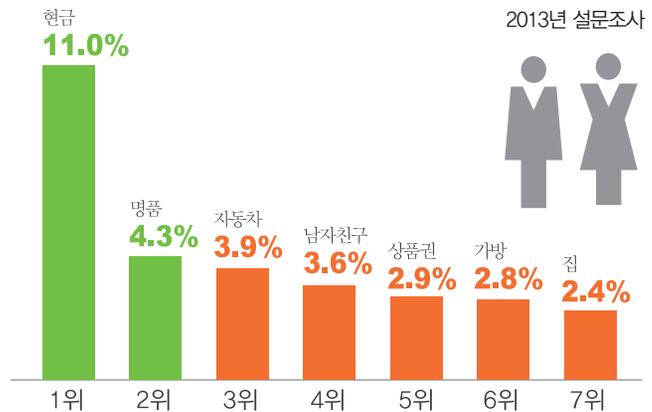
### 순천향인들의 새해 소망은?

2013년 설문조사



### 순천향인들의 선호 선물은?

2013년 설문조사



응답이 많았다.

불통과 고통을 소통과 희망으로 바꿔주는 '순천향인의 자양강장제'는 무엇일까? △감사하는 마음 △힘주는 선배님들 △동료의 격려 △커피와 핫시스 △우리 아들 △월급 △독서 △상사의 관심 및 격려 △매일 두 번씩 시행하는 불링동아리 활동 △환자분들의 웃음 △휴식과 여행 △고맙다는 보호자들의 말 △자녀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단연 격려와 칭찬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천향인들의 일상생활과 내면의 생각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떤 것은 변했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일까? 2016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

# 캄보디아와 중국 칭다오에 ‘인간사랑 생명존중’ 전파

## 병원 건립과 운영, 교육 시스템 전수 협약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은 2015년 말 중국 칭도 국제경제협력구와 캄보디아의 속하 호텔그룹과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칭도 국제경제협력구에는 병원 운영 자문을 비롯해 병원 정보시스템 지원, 병원 설계 자문, 의료인의 양성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칭도국제경제협력구에서는 건강의료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고, 의료 관련 정책의 인허가, 의료인의 면허 및 전문의 자격, 의료설비 인허가 등의 문제와 하드웨어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칭도 현지에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사무소 설치와 모자병원을 직접 합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월 24일 칭도 국제경제협력구에서 열린 업무협약체결식에는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장과 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형철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원장, 유병욱 순천향대 국제교류처장 등이 참석했다.

칭도국제경제협력구에서는 조사옥 칭도국제경제협력구 관리위원회 주임과 장려나 부주임, 포진우 칭도국제경제협력구 한국사업본부장, 반위 부분부장, 김상덕 과장, 태국철 투자유치담당, 여상각 중한혁신





산업단지 경제교문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속하호텔(SOKHA Hotel)그룹이 추진하는 병원 건립의 기본계획과 디자인, 장단기 발전계획 및 운영방안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속하호텔그룹은 먼저 내과계 검진센터를 포함한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 집중관리실 등의 모자보건 중심의 병원으로 진료를 시작해 2차적으로 병동을 증설하고 외과계 수술실, 안·이비인후과 등 전문 진료과로 확대할 예정이다. 3단계는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속하호텔 그룹은 병원 건립 계획 초기, 한국의 코엑스와 같은 레지던스형 멀티콤플렉스에 1개 층을 병원으로 만들고 기본 검진,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을 방문하고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꼭 필요한 진료과를 우선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한편 순천향중앙의료원의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15년 전부터 시작됐

다. 한감봉사회(회장 신원한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료ICT융합원장)를 발족해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2,000년부터는 매년 6명씩 캄보디아 의사를 초청해 1년 과정의 연수를 돕고 있다. 현재 60명이 넘는 순천향 연수의사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순천향 동문회를 결성해 캄보디아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 계약도 2013년 1년 동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산부인과와 소화기내과 분야를 연수한 의사 쪽 속헴(Dr. Sok Sokhem)이 속하호텔 그룹 회장(Mr. Sok Kong)을 비롯한 회장단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속하 호텔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석유, 보건의료, 호텔,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한 굴지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병원 건립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고위 관계자는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국민을 건강을 지켜온 순천향의 정신이 멀리 캄보디아에도 퍼지게 되었다"며 "순천향이라는 사익을 떠나 나라를 대표한다는 각오로 캄보디아에 대한민국의 선진의료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SCH

# 대한민국 청년, 새로운 삶을 선물받다

심정지 환자의 완전한 소생 이끌어낸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원호·박병원 교수의 '2인 3각'

만약 당신이 건강한 20대 청년이라면 평소 급사(急死)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인 최동준 씨 역시 스스로의 건강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마따나 갑자기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죽음의 문턱에 선 그가 다시 한 번 삶이란 이름의 무대로 나올 수 있었던 3일간의 기록을 재조명한다.

## '119',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번호

119가 긴급구조신고번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터다. 수의학을 전공한 27세의 최동준 씨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자신이 직접 119의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최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은 지난 해 9월,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정지신호에 맞춰 차를 정차시킨 후 통행신호를 기다리던 와중에 까무룩 의식을 잃고 만 것이다. 2년여의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각종 운동을 즐겨 하던 최 씨에게는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의 평소 운전습관이 정차 시 기어를 P에 맞춰놓는다는 것이었다. 그저 습관일 뿐이었던 이 사소한 행동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없앴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최 씨의 어머니는 먼저 둘째아들에게 전화를 한 후 비로소 119에 신고를 했다. 다급한 상황 탓에 긴급 상황 발생 시 무조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긴급 상황 발생 시 무조건 119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 씨는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긴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전화해야한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때는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막상 제가 긴급 상황에 처해보니 119라는 번호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그가 쓰러진 원인은 ‘확장성 심근병증’과 ‘부정맥’으로, 소위 ‘급사병’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특히 확장성 심근병증은 평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정지로 쓰러진 최 씨가 응급차에 실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17분이 소요됐다. 살인적인 서울시내 교통체증을 감안하면 제법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체됐기에 소생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최 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 30분 이상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 박동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응급의학과 전담의는 장원호 교수를 호출하였고 장원호 교수는 지체 없이 에크모 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확한 치료로 후유증을 없애다

최 씨에게 가장 먼저 시행된 에크모(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치료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덮은 이른바 ‘메르스 사태’를 겪은 환자들에게 사용된 의료기법이다. 에크모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호흡부전이나 순환부전이 있는 환자 중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이 불가능한 경우 심폐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생명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순환의 일종’으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에크모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로서, 이를 이용해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및 노폐물을 제거한 후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의 소생을 돕는 것이다.

장 교수는 “당시 환자의 상태는 심실성 부정맥이 지속돼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며 “과거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발생한 호흡부전환자 모두에게 에크모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환자에게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크모 치료 후 환자의 심박동은 회복됐으나 혈압은 매우 낮아서 기존의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응급 심장질환 경험이 탁월한 박병원 교수가 호출되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점검하였고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마비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두 교수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에크모치료와 함



께 ‘저체온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저체온치료는 심정지 환자의 체온을 3~4도기량 낮춰 뇌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체온이 떨어진 환자의 뇌는 적은 양의 산소로도 기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다”라며 “상당수의 심정지 환자들이 뇌손상 등의 이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병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 씨는 불과 3일 후 소생할 수 있었다. 그것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니 두 교수가 협진을 통해 도출해낸 정확한 치료방침이 고스란히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두 교수는 짧다면 짧은 3일 동안 최 씨의 상태가 그야말로 ‘롤리코스터’였다고 회상한다.

장 교수는 “에크모와 저체온 치료를 병행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폐렴소견이 발견됐다”라며 “이미 심장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까닭에 폐렴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최 씨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심정지 상황의 1차 예방을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마지막으로 병상을 털어내고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채 영글지 못한,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20대 청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 위해 두 교수가 하얗게 지새운 3일 밤의 가치가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다. 



'뇌졸중'이라는 용어는 순천향병원 설립자인 故 향설 서석조 박사가 1961년에 발표한 논문 '뇌졸중 환자 100례에 대한 임상적 관찰'에서 처음 사용해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자리 잡았다. 당시 서양 의학계는 '뇌혈관손상증'이라는 의미의 C.V.A를 사용했고,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는 용어를 썼다. 같은 질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서석조 박사는 용어부터 정리하자고 주장하며,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발표해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 뇌졸중 치료는 역시 순천향, 적정성 평가 4개 병원 모두 1등급

설립자 고 서석조 박사가 '뇌졸중' 용어 처음 사용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은 100점 만점을 획득했고, 천안병원은 99.9점을 받아 세 개 병원 모두 2005년부터 10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은 또한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가산금도 받는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의 4개 병원(서울·구미·천안·부천병원)이 모두 2015년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은 100점 만점을 획득했고, 천안병원은 99.9점을 받아 세 개 병원 모두 2005년부터 10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은 또한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가산금도 받는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 금연교육 실시율 ▲ 연하장애선별 검사 실시율 ▲ 1시간 이내 뇌영상 검사 실시율 ▲ 5일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 ▲ 정맥 내 혈전용 해제 투여 및 동맥 내 혈전제거술과 같은 즉각적인 치료들이 이어진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의료진을 비롯해 보험심사팀,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간호부, 전산정보팀, 의료정보팀 등 모든 연관부서가 일상불란한 협력체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돌본다.

특히, 24시간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활력 증후 등을 집중 관찰하는 3개의 모니터링 병상과 1개의 격리 모니터링 병상을 갖춘 뇌졸중전문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5명의 전담 간호 인력을 배치해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병원 역시 현재 뇌졸중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3개 과가 긴밀한 협진을 통해 급성 뇌졸중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 11월 최첨단 고성능 수술 현미경을 도입함으로써, 뇌혈관 및 혈류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해져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천안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뇌졸중 전문치료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스템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뇌졸중을 다루는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모든 진단과정이 30분 이내에 종결되고, 신속하고도 적합한 뇌졸중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유화된 시스템이다. 응급실에서의 불필요한 과정들을 없앴고, 응급실과 뇌졸중 전문 의료진의 비상출동 핫라인도 빈틈없이 구축해 놓았다. 급성기 뇌졸중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시스템이 즉시 가동된다. 신경학적 검사와 다중촬영CT, 뇌혈관 조영검사 등의 뇌영상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급성기 뇌졸중 의심환자들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256채널CT가 갖춰져 있다. 신속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뇌출혈이 없는 급성 뇌경색인 경우,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 및 동맥 내 혈전제거술과 같은 즉각적인 치료들이 이어진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병원의 '뇌졸중 전문치료 시스템'의 뒤에는 '뇌혈관치료연구회'가 든든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뇌졸중 전문 의료진들은 연구회를 통해 다학제적 토의와 연구를 진행하며, 최고의 뇌졸중 전문치료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병원 또한 뇌질환을 예방하고 환자의 합병증 및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2008년 뇌신경센터를 개설하고 그간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왔다.

뇌신경중심 전문진료센터로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뇌신경계 질환 환자에 대하여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으로 365일 24시간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뇌졸중은 진단과 함께 치료, 처치, 재활의 협진이 중요한 것을 반영해 관련 과와의 통합운영을 실시,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했다.

최신 기종의 뇌혈관 조영 장치, MRI, MDCT, 어지럼증 검사장비, 뇌혈류초음파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역 최초로 뇌혈관조영기와 최신 미세현미경 등의 뇌질환 전문시설 구축으로 현미경 뇌수술, 뇌내시경 수술, 뇌혈관 우회로 수술 등 고난도의 수술을 시행 중이다.

그리고 지역 의료인들을 위한 뇌혈관질환 심포지엄과 시민건강 강좌를 개최하여 뇌졸중 예방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응급실을 말한다. 이로써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를 아우르는 인천 권역 인구 417만 명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기관으로 거듭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그동안 부천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로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되는 등, 연간 응급환자 6만여 명을 진료하며 인천 권역 내 실질적인 제2권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인천 권역 내 어디서든 1시간 안에 도달 가능한 지리적 이점은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응급실 확장 공사 및 장비, 인력 보강 등, 총 87억을 투자해 2016년 7월 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픈한다. 특히 24시간 중증환자 협진 시스템 및 질환별 응급진료팀 구축, 감염병 환자 분류체계(Triage) 구축 및 동선 분리, 취약환자군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치료실과 화상치료실 신설, 신속한 환자이송 및 재난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최상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6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7월 초 새 응급실 오픈이 가능한 것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체계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병원!'**

1~2 본관 증축공사를 통해 2016년 7월초 새롭게 오픈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외부 조감도



##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 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지정 입법예고 이후, 응급의료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심포지엄’을 비롯해 다수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지역 유일의 상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왔다. 보건복지부 심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부천병원의 노력과 역량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성 이사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응급의료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성 병원장은 “시설, 장비, 인력을 빠르게 보강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는 ‘인천 권역 최고의 중증 응급질환 진료센터’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2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보면 응급수술 2.5시간 지연,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했다. 이로써 1시간 이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 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 SCH

- 3 12월 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사업 평가PT 발표 참석자 기념사진 (우측에서 3번째 김부성 이사장, 우측에서 4번째 이문성 병원장)  
4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



# “고객만족 넘어 고객감동으로!”

고객감동프로젝트로 2016년 시작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1 고객감동 실천 선포식  
2 서비스디자인 교육

“하나, 우리는 고객을 위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위해 행동한다..”

매일 아침이면 천안병원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고객만족실천선언문의 내용이다. 이제는 줄줄 외울 정도로 천안병원 교직원 모두의 뇌리 속에 박혀 있다. 2010년 시작된 천안병원의 고객만족프로젝트는 올해로 6년이 넘었다. 고객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이면 고객만족실천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2천 일을 보냈다.

## 고객만족프로젝트 6년 -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병원

고객만족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천안병원에는 많은 변화가 이어졌다. 가장 큰 변화가 '사랑'의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천안병원 교직원들은 누구에게나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넨다. 처음에는 건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색하기 그지없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져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순천향은 사랑이다',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병원을 만들자'는 구호 속에 함축되어 있듯이 고객만족프로젝트는 교직원들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했고, 천안병원을 고객에게 바짝 다가서게 만들었다.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환경개선도 이어졌다.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시설개선들이 다각도로 이어졌고, 환자들의 심터 확충을 위해 향설송원과 옥상정원도 조성됐다.

힐링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자에 대한 배려가 깊은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동행봉사, 음료봉사, 우산 무료대여 서비스, 진료여정 개선, 응급환자 진료의뢰 전용 핫라인 구축, 수술환자 전용 승강기 운영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천안병원의 진심어린 사랑과 배려에 고객들은 신뢰로 호응했다. 고객만족프로젝트 시작 후 꾸준히 고객만족도는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 2,000일간 흘린 땀과 노력으로 고객들의 믿음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천안병원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다시 빈틈을 찾는 등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

천안병원은 1월 11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고객감동프로젝트 선포식을 갖고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병원으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그간 진행해온 '고객만족프로젝트'를 '고객감동프로젝트'로 난이도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고객은 우리의 존재이유이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궁극의 목적"이라 말하고 "오직 사람의 따뜻한 가슴과 충만한 사랑만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며 더 큰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

'고객과 동행하는 순천향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충만한 사랑, 진심을 담은 감사, 따뜻한 배려를 통해 고객과 동행하고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고객감동프로젝트의 요체는 교직원과 환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이루자는 것이며, 가장 큰 실천과제는 서비스 디자인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분석해 빈틈을 메우고, 고객감동의 서비스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CS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천안병원은 이를 위해 원내 CS전문가를 선발 양성하고 있으며,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분화 되고 지속적인 CS교육에 나섰다. 고객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인다. 원내 곳곳에 마련된 고객의 소리함을 적극 활용해 고객과 소통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 고객감동의 디딤돌 '서비스 디자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이야기하려면 서비스 디자인은 빼놓을 수 없다. 정부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병원의 서비스 디자인은 환자가 병원에서 항상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천안병원은 서비스 디자인을 위해 각 직종에서 교직원 50여명을 선발해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해 2일 간 실시한 교육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과 사례, 서비스 디자인도구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강의는 물론, 스스로 고객이 되어 병원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서비스 디자인 도구를 통해 분석하고 해결해보는 실습도 병행했다. 고객의 눈으로 병원서비스를 바라본 교직원들은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활동 계획들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천안병원 서비스 디자인 활동은 6개 주제로 나뉘어 펼쳐진다. 승강기 탑승대기시간 단축, 병원 이용안내, 퇴원시간 단축, 검사 대기 시간 단축 등 환자경험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이 주제로 선정됐다. 가장 먼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주제는 승강기 탑승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실시하는 '행복계단캠페인'이다. 서비스 디자인 첫 사례로 1월 중 활동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천안병원은 오는 3월 경 서비스 디자인 활동결과를 종합해 첫 번째 서비스 디자인 심포지엄도 연다. 

### 서비스 디자인 사례



## 행복계단 캠페인

### 승강기 환자들에게 양보하고 교직원들 계단이용

추가적인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승강기 탑승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병원은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결론은 환자들을 위해 승강기를 양보하지는 않. 천안병원 교직원들은 환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행복계단 캠페인'을 창안했다. 서비스 디자인 교육을 마친 교직원들로 구성된 행복계단팀은 서비스 디자인 도구를 통해 문제를 분석했다. 그리고 '행복계단, 건강의 시작, 고객사랑의 실천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고객감동 선사, 교직원 건강증진, 예교병원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행복계단팀은 우선 계단오르기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계단오르기는 고객에 대한 배려심 표현과 더불어 운동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교직원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 스티커, 배너 등을 제작해 병원 곳곳에 부착 설치했다.

계단이용을 독려하는 서명행사와 설문조사도 실시해 교직원들이 캠페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 활동도 벌였다. 원내 전 PC 화면 보호기능에 행복계단 캠페인 내용을 설치했고, SNS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천안병원 승강기마다 러쉬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승강기 이용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도 계단을 오르는 교직원들의 모습이 크게 늘었다.

행복계단 캠페인의 최종 목표는 '오르고 싶은 계단'을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캠페인의 목적이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한들 숨이 차도록 힘들고 단순한 색으로 칠해진 무미건조한 계단을 오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계단팀은 오르고 싶은 계단을 만들기 위해 계단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원내 계단마다 행복계단, 사랑계단, 건강계단 등등의 이름을 부여하고 각각의 이름에 맞는 좋은 글귀와 다양한 정보들로 꾸며, 풍성한 불거리가 가득한 계단, 너도 나도 오르고 싶은 계단을 만든다는 것. 천안병원 계단의 대변신. 건강과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나는 계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 순천향대 서울병원 황열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

**12월1일부터  
모든 종류의 해외여행 예방접종 가능**

순천향대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센터장 유병욱)가 황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돼 2015년 12월 1일부터 황열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황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의무적 예방접종이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지정장소에서 맞아야 한다.

또한, 국가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순천향대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인지구매, 예약,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다. 주 중에 내원하기 어렵거나, 원거리에서 접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토요일 오전에도 외래 진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해 편의를 돕는다.

백신은 여행 출발 10~14일 전에 맞아야 한다. 예방 효과는 접종 10일

# Yellow Fever





후부터 시작해 10년까지 이다. 예방접종은 거의 100%에 가까운 효과를 보인다. 면역이 안된 성인이 황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이다. 9개월 미만의 영아와 계란 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체내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제4군 법정 전염병인 황열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로 3~6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전신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증상이 생긴 후 7~10일 사이에 쇼크와 혼수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유병욱 국제진료센터장은 “황열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지만 예방접종만 한다면 100%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행지역을 갈 경우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며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다면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하려는 지역이 유행지역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황열 이외에 여행하려는 지역에 따라 반드시 미리 접종해야 하는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은 황열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A형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수막구균 등의 예방접종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감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는 2013년부터 KOICA 해외 파견 일 반봉사단원 예방접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KOICA 산하 NGO기관의 봉사자들의 접종 수행과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성지 순례 여행자들을 위해 수막구균의 도입을 추진해 2013년도부터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등 해외여행자들의 건강상담 및 접종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 황열 예방접종 문의

진료예약

02-709-9058

단체접종 및 기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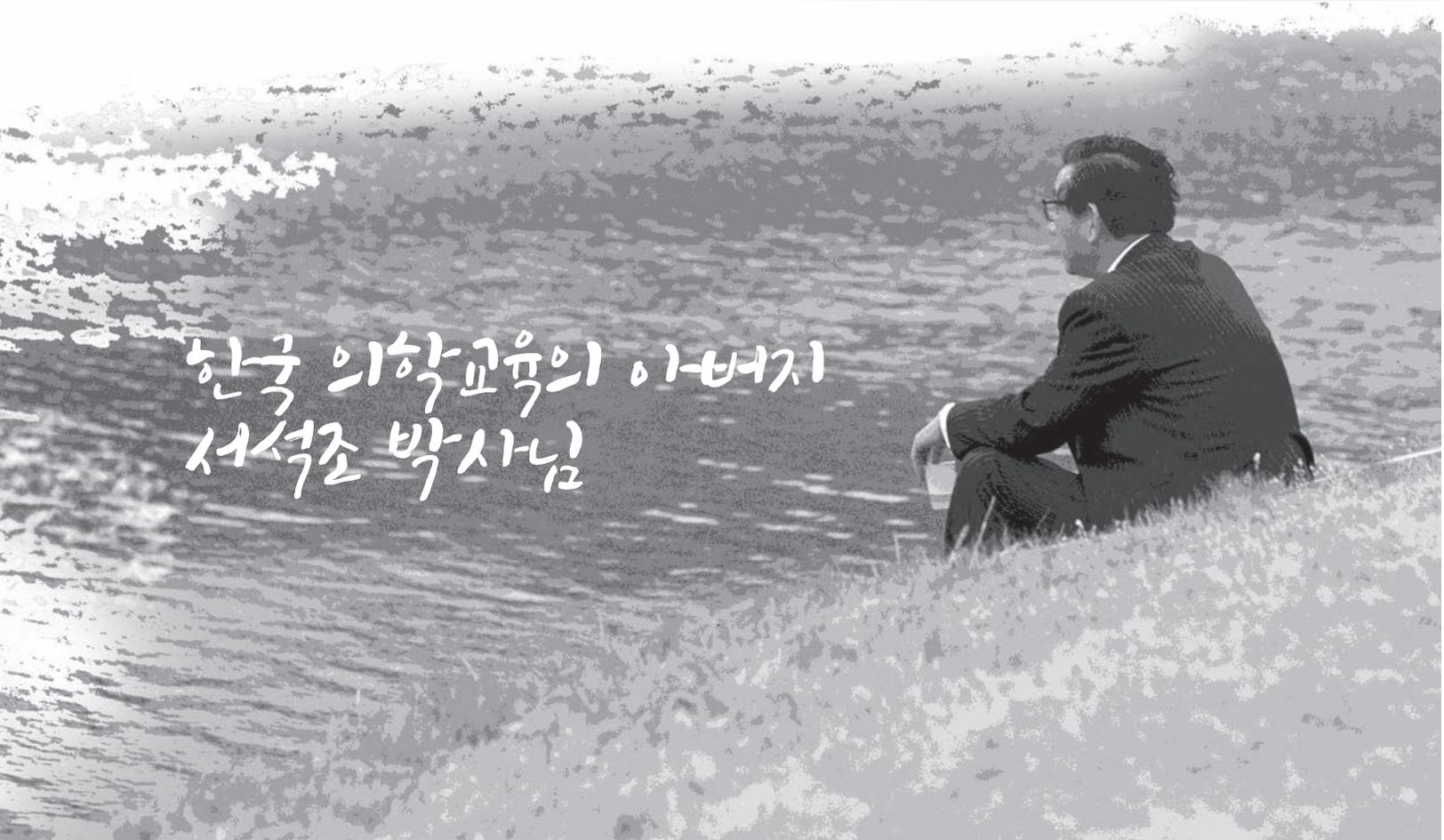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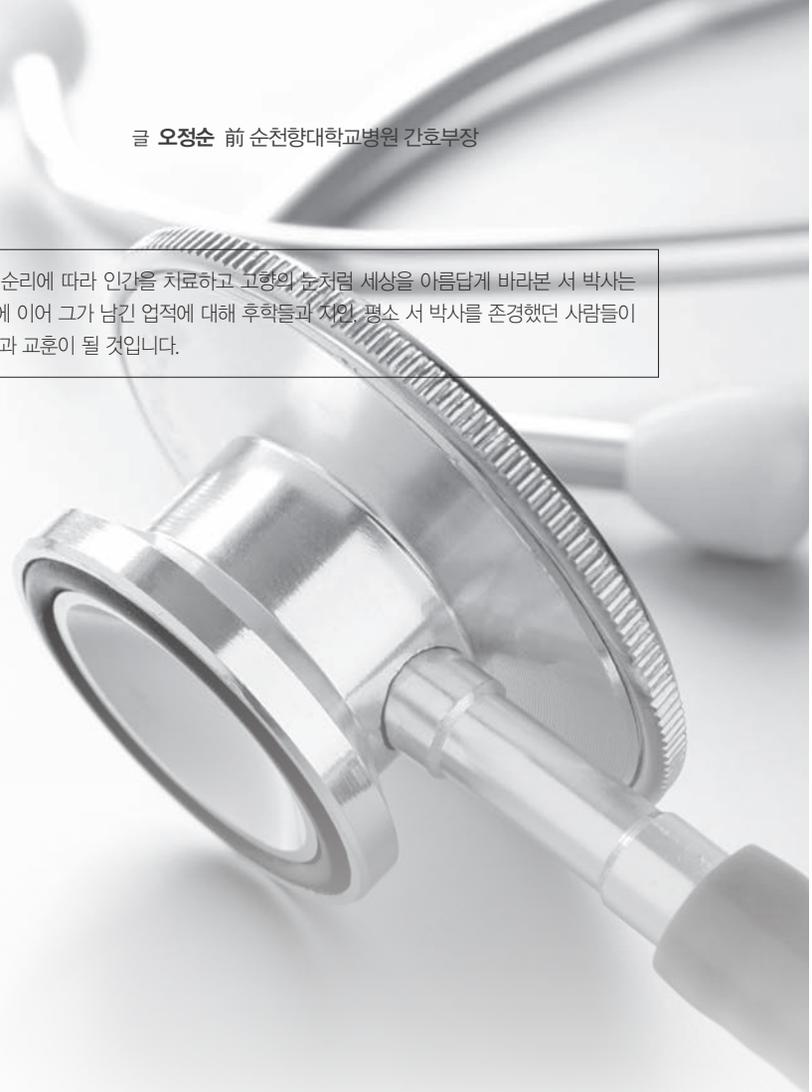
02-710-3090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커다란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간을 치료하고 고향의 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 서 박사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의료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서 박사의 일대기에 이어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해 후학들과 지인, 평소 서 박사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감동적인 얘기를 연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참 스승’  
”

서 박사님과 함께 한 의료생활 20년

한국 의학교육의 아버지  
서석조 박사님



저는 서 박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로 박사님과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도 박사님을 생각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서 박사님은 성품이 워낙 과묵하시고 조용하셨지요. 그 분이 저한테 큰 일 맡기실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거의 20년을 선생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처음 박사님을 뵈는 것은 성모병원에서였습니다. 당시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에 간호부장으로 계셨던 방 수녀님이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성모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박사님이 동은병원을 열었을 때에도 제가 거기에 간호 책임자로 가면서 함께 일하게 됐어요.

당시 동은병원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국에 있는 환자는 다 모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3년 4개월 동안 하루 수백 명의 환자를 보셨고 그 명성이 대단했지요. 그 후 저는 고려병원을 거쳐 백병원에서 함께 근무할 시절 박사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한남동에 종합병원을 세우려고 하니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병원에 그만둔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백낙환 원장님께 박사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나는 박사님과 의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백 원장님은 '백병원은 이미 병원으로서 궤도에 올라있고 순천향은 아직 준비 단계임을 감안하여 양쪽으로 일을 봐 줄 수 없나?'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정성을 기울려도 일을 잘할지 의문인데 두 군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다만 남은 기간 동안 장차 순천향에서 일을 할 간호원 한 팀을 짜서 보내고 저는 백병원에서 일을 마친 다음 밤에 순천향병원에 가서 개인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서 박사님과 의리를 생각하여 순천향을 가까이 선택했고 1974년 순천향병원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는 박사님의 인덕으로 병원을 개설하였으니 너나 할 것 없이 말은바 최선을 다 한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환자들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 날로 발전한 순천향, 1978년을 전후해 최 전성기

순천향은 박사님을 중심으로 날로 발전을 했습니다. 병원이 잘 되고 박사님이 만족해하시는 것을 보면 행복했으나 정작 제 자신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영주와 밀착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만 두려고 했는데 박사님은 '병원이 잘 되고 있고 확장 일로에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당장 그만 두면 안 된다고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다가 10.26사태가 나고 나서 1982년 정든 병원을 떠났습니다. 박사님은 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나 약주를 하시면 아주 유머가 뛰어나시고 좌중을 압도하셨어요. 회진을 할 때도 스태프들이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며 별 말씀이 없었지만 박사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1974년도에 순천향으로 와서 1982년도 초까지 함께 했습니다. 20년을 곁에서 모시면서 정말 배운 점도 많고 내 인생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78년도를 전후해서 순천향병원이 전성기였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기공식을 할 때 참석했습니다. 온양에 내려가 삽질을 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얼마 전에 학교를 갔더니 흙을 파던 곳이 이렇게 변모가 됐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순천향병원을 지을 당시만 해도 주변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상태였어요. 허허벌판을 바라보는 당시 스태프들은 모두 의아해 했지만 박사님은 이미 그때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셨고 순천향병원으로 인해 한남동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지요.

박사님은 어려운 고비도 많았습니다. 병원을 지을 때 시멘트 파동도 그렇고 그 외 수많은 고비가 있었으나 박사님은 의연하게 그 파도를 이기고 의료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느 누구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아까운 분이 돌아가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드님이 선생님의 뒤를 잇고 있어 기쁩니다. 서교일 총장님의 순천향이 하늘의 순리에 따라 발전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보고 있습니다. 

# 항상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구미병원 마스크트

권순희 고객지원팀 사원,  
긍정이 빚어낸 삶의 희망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고전 명작만화 <들장미소녀캔디> 타  
이틀곡의 가사 일부다. 주인공 캔디  
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밝은 모습  
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준다. 마치  
만화 속 주인공처럼 항상 웃는 얼굴  
로 일하는 권순희 고객지원팀 사원  
은 ‘구미병원 마스크트’로 불린다.  
긍정의 힘이 만든 그녀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한다.

### 더 행복한 나를 만드는 '긍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일하는 권순희 사원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고 전화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콜센터'로 대변되는 소위 '정신노동' 종사자들의 어려움이야 이미 알려진 사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찾는 병원의 고객응대업무가 녹록하지 않다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터다. 권 사원 역시 불편함으로 화가 난 고객들의 불호령을 뒤집어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결코 환자들에게 자신의 기분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구미병원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 지났네요. 그간 왜 빨리 진료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고객과 병원 이용에 불만이 있는 고객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고 일일이 상황을 설명해주던 지난 6개월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으니까요. 적응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몸이 불편한 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환자를 대하는 권 사원의 밝은 모습은, 그녀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자였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6세부터 소아당뇨와 합병증으로 고생해온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는 투석까지 해야 할 만큼 상태가 나빴다. 학창시절에는 병 탓에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고, 투석을 시작하고부터는 어렵사리 입사한 회사까지 퇴사해야 했다.

“저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았던 환자였다 보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어깃장을 부리는 환자라 할지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입구에 앉은 저부터 인상을 쓰고 있으면 환자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환자들의 입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한 조각이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환자로 지내야했던 권 사원이었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할 때면 항상 밝은 미소를 곁들인다. ‘역지사지’라는 말마따나, 그 저 환하게 웃고 친절할 말투로 환자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환자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 그녀가 구미병원 산타클로스가 된 이유

삶의 절반 이상을 병마와 싸워야했던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것은 친동생이었다. 신장을 2년 전 여동생으로부터 이식받게 됐던 것이다.



하루 수백 명의 환자와 마주하는 권순희 사원이 진료 예약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당시만하더라도 저 자신만 생각하기 바빠서 동생이 얼마만큼 큰 결심을 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신체의 병이 마음까지 약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혹시라도 신장이식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 할 정도로 철이 없었죠. 이식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동생에게서 저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가장 먼저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나갔다.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한글·파워포인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격증을 획득했다. 주말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 멀리 서울까지 떡과 쿠키 등 각종 요리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 동료들에게 지난 추석 선물한 송편과 크리스마스 쿠키선물도 당시 배움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러한 나눔의 행보는 동생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그녀가 행복을 주위에 나눠주기로 결심한데서 비롯됐다. 송편과 쿠키는 물론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한 동료들에게 직접 쓴 손 편지에 마음을 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학대아동을 돌보는 ‘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연말카드의 표지그림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장 이식 후 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동생이 제게 ‘신장을 줄 수 있어서 내가 더 고맙다, 건강한 언니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맹세했습니다. 동생이 선물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요. 비록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진심을 담은 제 선물에 다른 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더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삶을 함께 걷어가는 동반자’

뇌졸중·척수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스포츠재활  
전문치료로 희망재활 만드는 구미병원



재활의학과는 말 그대로  
 ‘환자의 모든 것’에 대한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질환의 치료는 물론 절망의 끝에 선  
 장애인자가 가족과 함께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의 불행을 희망으로  
 되돌리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하루를 재구성한다.

### 구미병원, 지역 최초로 재활의학과를 개설하다

재활의학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질환의 합병증을 초기에 예방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긴 장애를 가진 환자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관련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분야다. 환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재활의학의 중요성은 의학발전예 따른 환자 생존율 증가와 맞닿아 있다.

재활 치료의 대상은 △뇌질환 및 뇌 손상 재활 △척수 손상 및 척수 질환 재활 △지체 절단 재활 △뇌사상 및 동상 재활 △노인 질환 재활 △암 환자 재활 등 모든 장애 상태가 해당된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의학의 본질은 결국 환자들이 치료 후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지난 2011년 구미 지역 최초로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1차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가정과 사회로의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병원 재활의학과는 황성일 교수를 중심으로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7명, 작업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재활운동·물리·작업(인지)·소아치료실 등 각 환자별 특성에 맞는 전문치료실과 근전도검사기, 근골격계초음파, 전산화인지치료기 등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4년 소아치료실 개설을 계기로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소아 재활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폭넓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M 7:30 황성일 재활의학과 교수를 필두로 컨퍼런스가 열린다. 각 영역의 치료사들이 담당하는 환자들의 치료현황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치료를 하기 위함이다.



AM 8:30 황 교수가 병동으로 바쁜 걸음을 옮긴다. 입원 환자는 20여 명, 바쁜 일정에도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회진을 한다. 특히 황 교수는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회진시간이 긴 편이다. 오랜 재활에 지친 환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그만의 응원법이란 설명. 뇌경색으로 입원한 78세 남성 환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후 ‘많이 나아졌다’며 웃는 그의 표정에서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AM 9:00 소아치료를 찾은 첫 환아는 장현호 군(8세, 소아마비). 이정호 물리치료사는 하체균형과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소아치료실에 배치된 3명의 치료사는 하루 평균 각자 환자 10명 이상, 개별 30분 이상의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환자 및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각 환자별 전담 치료사를 배정하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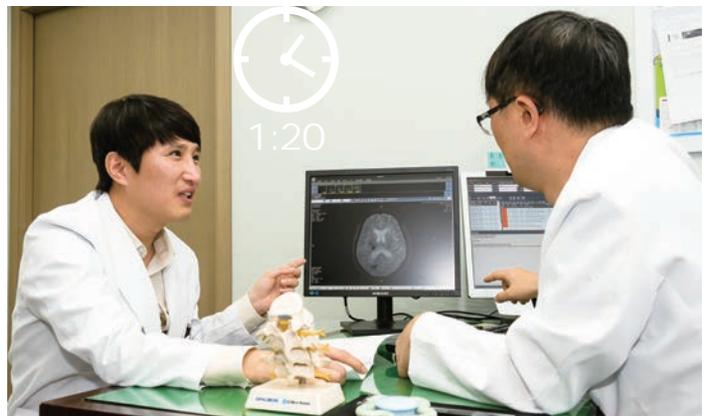


AM 9:20 회진 후 외래진료가 시작됐다. 운동 중 사고로 인대가 파열된 20대 환자의 향후 재활치료방향을 설명했다. 재활의학과 외래 환자는 하루 60여명에 이른다. 우리가 흔히 '물리치료'로 부르는 것 또한 재활의학의 한 분야로 1차 치료 후 재활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이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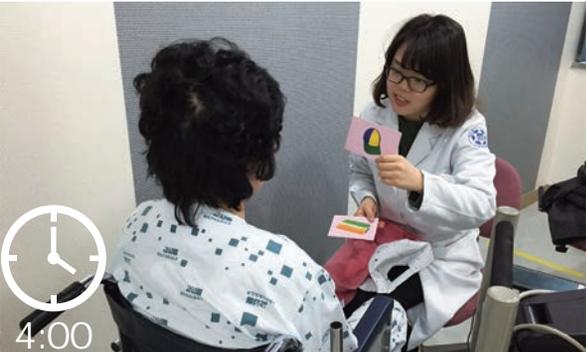
AM 11:00 김정숙 팀장과 7명의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실 틈 없이 가동된다. 김태곤 치료사는 뇌출혈로 좌측마비인 40대 남성환자에게 근력강화 운동치료를 시행한다. 한편에서는 김범기 치료사가 65세의 뇌졸중 환자에게 인지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과제수행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같은 시간, 작업치료실에서는 최은수 작업치료사가 80세 뇌경색 남성환자에게 연하운동을 실시. 연하운동은 후유증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활치료법으로, 목 부위에 전기자극을 가해 음식을 삼키는 동작을 돕는 치료법이다.

PM 1:30 주재정 신경과 교수와 협진중이다. 60대 남성 뇌경색 환자로,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차 치료를 담당한 신경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치료방향을 설정한다. 재활의학과 협진은 기본적으로 장기치료, 즉 재활이 필수적인 후유증 환자들의 정확한 현 상태 파악과 향후 치료방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PM 3:00 황 교수가 변정숙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동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구미시노인복지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촉탁의 제도(기관 및 단체에서 건강 진단, 질병 치료 등을 위촉/의사 파견제도)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구미병원 재활의학과와 큰 특징은 지역 내 다수의 단체와 연계한 재활프로그램을 꿈꿀 수 있는데, 변정숙 사회복지사가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시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구미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구미장애인복지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자원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1차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공헌활동이다.



PM 4:00 구미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외에도 심리적 정서지지를 위한 원예 및 공예요법 시행으로 재활의지와 삶의 충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SCH**

m i n i I N T E R V I E W



황성일 재활의학과 교수

‘환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될 것’

지역 최초로 재활의학과를 개설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입원해야 하는 등 물리적·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했던 환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재활의학과 개설을 통해 1차 치료 이후의 재활치료를 신속·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재활의학의 역할이 병원이란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환자들이 웃음이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가 치료해야 하는 것은 비단 질병뿐만이 아닌 사람 혹은 삶,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죠. 환자들의 남은 수십 년 삶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역할이야말로 재활의학과를 선택한 의료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활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현 추세에 맞춰 향후 새롭게 재활센터를 개설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물리치료팀장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다’

환자들은 혼자 거동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내원 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는 재활환자의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는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이에 구미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와 면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된 환자들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한편 이로 인해 인격과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의학과 환자들은 몸이 아닌 마음의 상처가 더욱 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구성원들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씨(박서현 어린이 보호자, 4세)

‘가족 같은 구미병원 재활의학과에게 감사해’

우리 서현이가 구미병원을 찾은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선천적 뇌성마비에 고관절 수술까지, 서현이를 볼 때마다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구미병원에 소아재활이 없었다면 재활치료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집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병원에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 같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1년 전 황성일 교수님과의 면담 후 1주일에 두 번씩 재활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치료사분들께 배운 대로 자가 재활치료를 병행했더니 최근에는 물라보게 서현이의 신체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물건을 잡고 두 다리로 설 수 있을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가족같이, 평범한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서현이를 맞이해주는 교수님과 여러 치료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 혈액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환자 치료 효과 극대화 할 것

**이정재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장, 국내 무수혈 의료분야를 선도하다**

현대의학 발전의 혁신적인 계기로 손꼽히는 '수혈'의 개발로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학의 발전으로 수혈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밝혀짐에 따라 수혈대체요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무수혈 의료'의 탄생배경이다. 국내 무수혈 의료분야를 이끌고 있는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장의 행보를 따라간다.



## 서울병원, 국내 최초의 무수혈센터 개소

의학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수혈이 본격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났다. 이후 수혈은 '수술 시 환자가 흘리는 혈액은 반드시 수혈을 통해 보충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을 만큼 일반화됐지만 최근 이 같은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다. 수술 시 출혈에 대해 수혈을 통한 혈액보충이 필수라는 오랜 상식의 틀이, 수혈의 각종 부작용을 보완해줄 '무수혈' 및 '최소수혈' 의료기법의 개발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무수혈센터를 설립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행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병원 무수혈센터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이정재 산부인과 교수는 국내 무수혈 의료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3천여 건에 이르는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의학서적, 'Patient Blood Management(환자 혈액 관리)' 제작에 참석하며 순천향대학교 무수혈센터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하기도 했다. 해당 서적은 환자 혈액 관리 선두국가인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 무수혈 의료분야 권위자들이 참여·제작한 서적으로, 환자 혈액 관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산부인과 항목을 맡았으며, 이에 더

해 병원 내 환자 혈액 관리 프로그램 정착 및 수행을 돕는 내용도 함께 저술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수혈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가 이끌고 있는 서울병원 무수혈센터 역시 국내에서 독보적인 관련 치료 경험과 수준을 자랑한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양성자궁질환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산부인과 환자의 전국 병원 평균 수혈율이 무려 15~20%인데 반해 서울병원의 경우 고작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의 독보적 수준에 대한 방증인 것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병행하며 국내 무수혈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혈이 일반적이었던 중증빈혈환자에 대한 무수혈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의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빈혈 외에 다른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라면 수혈하지 않고 중증빈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논문은 지난해 6월 SCI 저널 호주 뉴질랜드 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됐다.

**혈액 관리 시스템 정립,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혈액관리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교수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환자 혈액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학제적 수혈대체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의학인 환자 혈액 관리의 빈혈·출혈 관련 질환을 사전에 교정함으로써 출혈 및 수혈을 최소화하는 개념을 말한다. 특히 다수의 관련 과에서 다발적으로 접근하는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지만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혈액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적정한 수혈을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수술 시 예후를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서울병원 무수혈센터와 수혈위원회가 함께 환자 혈액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여러 면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종 연구를 통해 수혈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는 한편 무수혈 및 최소수혈 분야의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 환자 혈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혈액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각 환자별 상황에 맞는 수혈방침 선택과 맞닿아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혈을 꼭 해야하는지 ▲대체치료방법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수혈 혹은 대체 치료방법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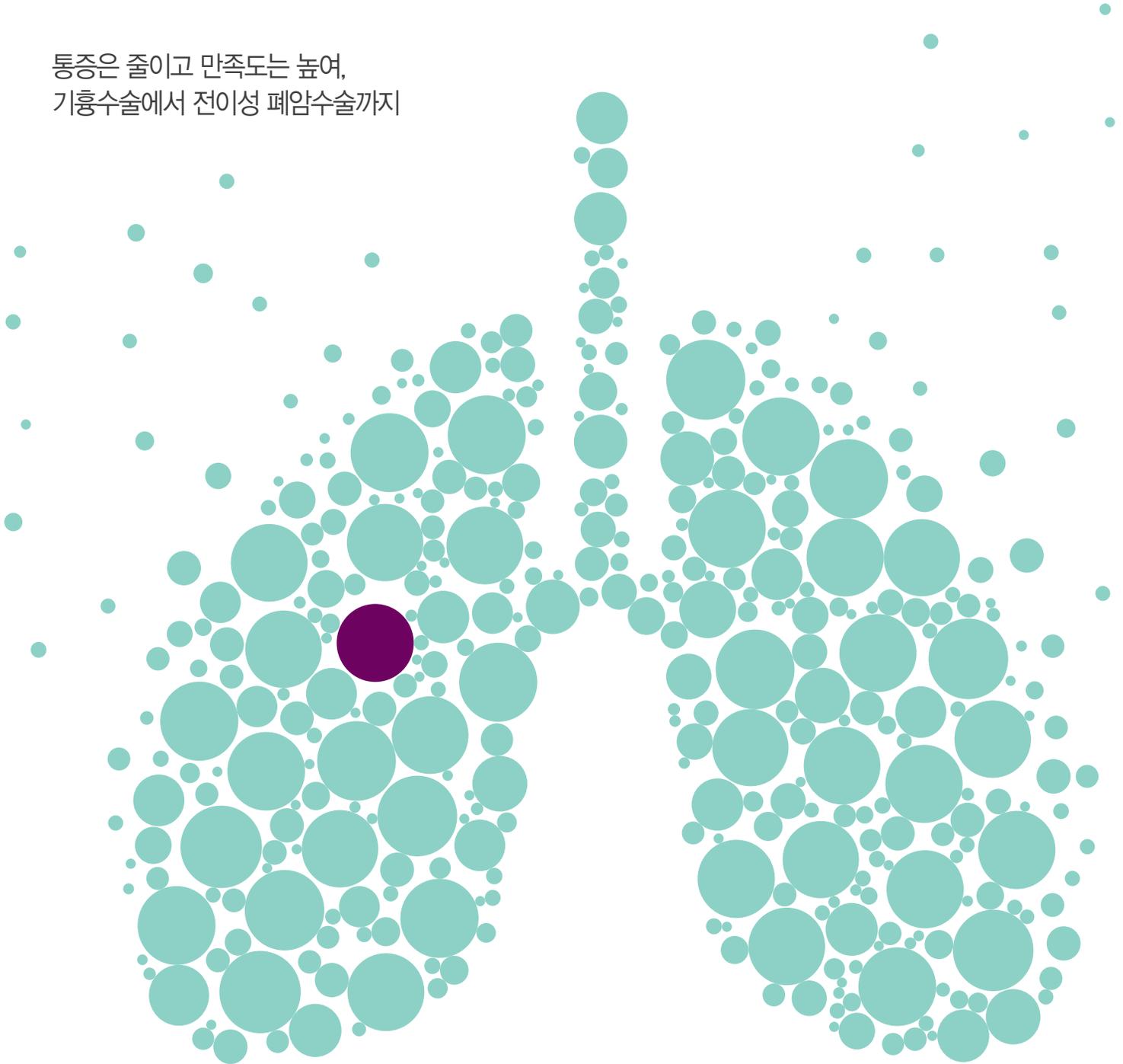
“혈액 관리는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수혈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B·C형, 에이즈 등의 각종 질병에 대한 간염을 비롯해 수혈의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새해를 맞이해 무수혈응급센터 개소를 올해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병원에는 무수혈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응급센터가 마련돼 있지는 않다. 다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무수혈을 원하는 경우 무수혈센터 소속 전문의를 배치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담 응급센터 개소로 보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무수혈 의료분야는 '미개척지'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까닭에 발전 여지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설명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현대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이정재 교수의 행보는 오늘도 변함없이 뚜렷하다. 

# 구멍 하나로 끝내는 '단일절개 흉강경수술'

통증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  
기흉수술에서 전이성 폐암수술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에서는 풍부한 흉강경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기흉수술에서 전이성 폐암에 이르기까지 통증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흉부수술인 개흉술은 피부와 근육을 절개한 후 좁은 갈비뼈 사이 공간을 벌리고 시행되는 수술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늑간 신경을 비롯한 여러 신경들이 손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부위의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육 절개범위를 줄이고 늑간신경 등 신경들의 손상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비디오 흉강경수술이 개발되어 기존의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개흉술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대체하기 시작했다. 비디오 흉강경수술은 이후 임상 적응증을 지속적으로 넓혀 오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개흉술에 비해 수술 후 기능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미용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디오 흉강경수술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흉강경 수술용 기구들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3개의 절개창(포트, 구멍)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흉강경수술 대신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는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3-포트 흉강경수술은 약 1~1.5cm 크기의 절개창을 세 군데 만들어 이를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들을 흉강 안으로 집어넣고 수술을 진행한다. 이 경우 2~3곳의 늑간 사이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따라서 2~3곳의 늑간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된다.

이에 비해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의 경우에는 2~2.5cm 크기의 단일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늑간 신경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통증과 감각 이상이 적어 입원기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처 부위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3-포트 흉강경수술에 비해 환자들의 미용적인 만족감도 매우 높다. 이런 이점들로 인해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은 기흉을 비롯해 종격동 종양, 폐 및 늑막 생검, 종격동 림프절 생검, 전이성 폐암 등 여러 흉부질환의 수술과 검사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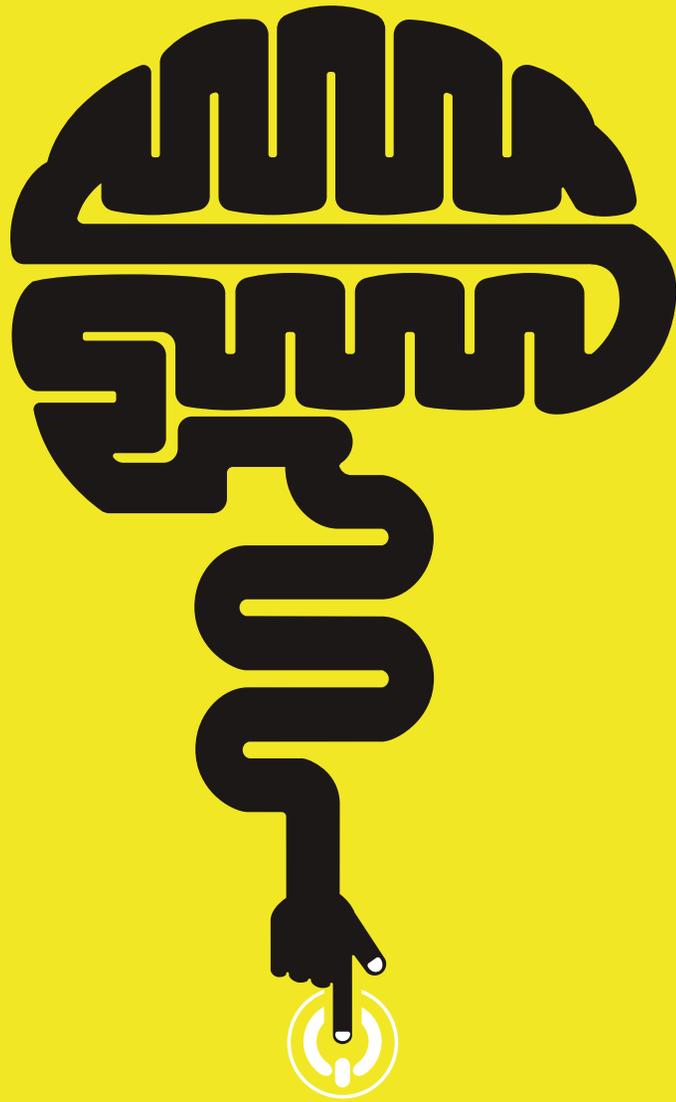
이처럼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은 기존의 3-포트 흉강경수술보다 장점들이 많지만 아직 널리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기존의 흉강경수술에 비해 시야가 좁다. 좁은 단일 절개창을 통해 여러 개의 수술에 필요한 기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술시야 확보가 어렵고, 기구들 간의 부딪힘 현상이 3-포트 흉강경수술보다 훨씬 심해서 수술 술기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단일절개 흉강경수술 시행을 주저한다.

또한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이 기존의 3-포트 흉강경수술보다 우수한 점이 많지만 모든 흉부 수술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병변의 위치가 폐하엽의 바닥구역에 위치해 있거나, 농흉처럼 심한 흉막 유착이 있는 경우, 또는 종괴의 크기가 커서 작은 절개창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일차성 자연 기흉과 같이 병변이 상엽에 위치하고 흉막 유착이 없는 단순한 경우부터 단일절개 흉강경수술을 적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송인학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교수





# 노화 억제하는 세스트린 신호전달체계 발견

김정식 순천향대 의대, 이준희 미시건대학 교수팀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이준희 미국 미시건 대학 교수팀은, 노화 조절 기능을 가진 세스트린(Sestrin)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활성화되고 억제되는지 작용 원리를 발견했다. 향후 노화와 암 발생 억제, 비만과 당뇨 조절 기능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세스트린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조절체 단백질이다. mTOR라는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저해하여 암 세포증식과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질환,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증후군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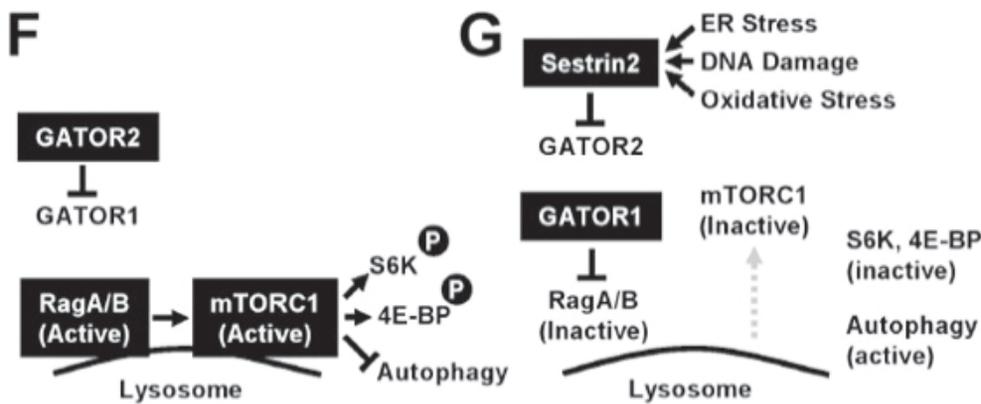
지금까지는 이 세스트린이 mTOR신호전달계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먼저 AMPK라는 신호전달계에 작용해서 간접적으로 mTor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최근에는 mTORC1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RagB를 조절하는 GATOR1/GATOR2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용 원리는 세스트린이 노화 등을 억제하는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하고, GATOR1과 GATOR2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정식 이준희 교수팀은 [그림1]처럼 세스트린2가 GATOR2에 붙으면 GATOR1이 분리되고 분리된 GATOR1이 RagB에 작용하여 mTORC1 신호전달체계를 억제시키는 원리를 발견했다. 김정식 교수는 “mTORC1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며, 노화와 암 발생 억제, 비만과 당뇨에 대한 조절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이준희 미시건 주립대 생리학과 교수팀의 논문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3월 호에 게재한 내용이다. [그림 1] 정상시에는 GATOR1과 GATOR2가 복합체를 이루며 GATOR2가 GATOR1을 억제하며 있다가 시스트린이 GATOR2에 붙으면 GATOR1이 분리되고 분리된 GATOR1이 RagB에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여 mTORC1이 억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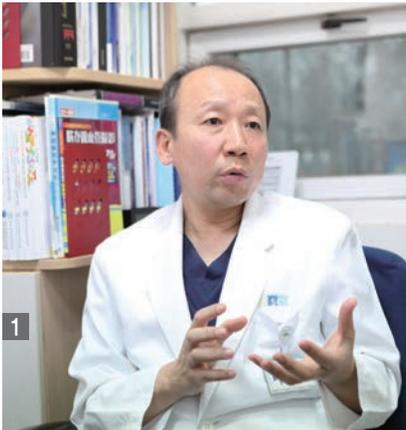
순천향대 의대 산부인과 김정식 교수



[그림1] 정상시에는 GATOR1과 GATOR2가 복합체를 이루며 GATOR2가 GATOR1을 억제하며 있다가 시스트린이 GATOR2에 붙으면 GATOR1이 분리되고 분리된 GATOR1이 RagB에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여 mTORC1이 억제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

## 환자 진료하며 얻은 아이디어로 잇달아 특허 등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가 고안한 특허가 잇달아 등록돼 화제다. 먼저 김 교수가 고안한 ‘수술용 보조테이블’이 지난해 10월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로 등록된 ‘수술용 보조테이블’은 수술도구를 수술 부위에 가깝게 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이다.

뇌혈관내치료(Intervention, 중재술)나 심혈관 등의 수술 시 허벅지 혈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수술용 보조테이블은 수술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수술자가 수술도구를 직접 다루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김범태 교수는 “특허 등록된 수술용 보조테이블은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져 필요시 수술자가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이 가능해 혈관수술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이 특허의 시제품을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화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이 특허로 등록됐다.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은 혈관조영술과 뇌혈관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수술실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수술할 수 있게 고안된 수술대다. 특히 이 수술용 테이블은 혈관조영술과 함께 머리 부분 폭을 좁게 해 뇌혈관 수술도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김 교수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은 뇌혈관수술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혈관조영술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특히 수술테이블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장치를 부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치료 경험 성과, 환자에게 다시 돌려드려야죠”

“환자 치료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치료, 수술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합니다. 의사가 임상치료 과정에서 얻은 창의적인 생각을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특허’죠. 저는 이 일이 재미있습니다.”

김 교수는 25년 동안의 임상진료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평소 이를 환자 진료나 치료·수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환자 외래진료와 회진, 연구, 대학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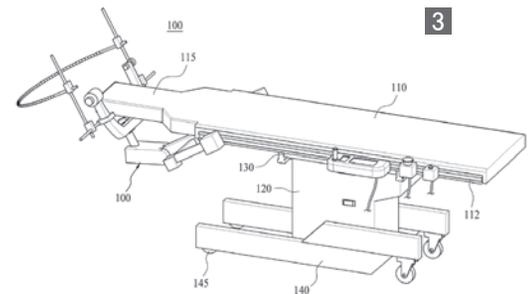
등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모든 의사들이 이러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실제 발명이나 특허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온전히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특허 등록으로 이어졌다. 임상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특허 등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김 교수의 노력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이 더해져 가능했다.

김 교수는 “아이디어만 있다고 특허라는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근 성과들은 산학협력단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 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우리 병원이 첫 평가를 시작한 2005년부터 10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환자 치료경험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치료 현장에 다시 반영하고자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 치료 경험을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범태 교수는 “후배 의사들도 임상 현장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환자 진료에 새롭게 적용하고, 발명으로 만드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1 인터뷰 중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
- 2 지난해 10월 특허로 등록된 '수술용 보조테이블'. 김 교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술실에서 사진 속 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 3 지난해 12월 등록된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 특허 도면



글 김지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파킨슨병, 치료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사회적 부담 줄여야”

미국의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와 배우 로빈 윌리엄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파킨슨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상이나 원인,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지선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팀(강릉아산병원, 충남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의 일반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파킨슨병의 정의, 증상, 인지, 치료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파킨슨병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0명 중 9명으로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파킨슨병의 원인이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이상 운동 질환이라는 생각이 45%에 그쳐 어떤 병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떨림(63.5%)과 기억력 저하(55.6%)이다. 실제 환자들이 더 많이 고통 받고 치료가 필요한 증상인 경직, 서동(움직임이 느려짐), 보행동결 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가령, 손이 떨릴 때 파킨슨병을 먼저 의심하는 비율도 25%에 그쳤다. 그 대신 수전증을 생각하는 비율 52.6%, 뇌졸중을 생각하는 비율이 43.8%로 나타나서 파킨슨병의 증상의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약물 치료 효과에 관한 인지도는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지만 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는 비교적 정확한 인식과 '증상을 호전시키면서 병의 진행도 늦출 것'이라는 인식이 각각 35.3%와 35.6%로 비슷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증상이 좋아지고 난 후에 '평생 약물을 복용하며 증상을 조절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이 35.6%,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복용하고 끊으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 역시 38.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가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수익이 높을수록 파킨슨병에 대해 잘 인지하고 명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파킨슨병의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킨슨병의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지선 교수는 연구결과를 작년 11월 14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제3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영어 구연 부문 우수발표상을 받았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글 조용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실패 쉬운 금연, 금연클리닉과 함께하면 작심 성공



언제나 해가 바뀔 때면 사람들은 매년 금연을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새해 소망으로 금연을 생각하지만 대부분 허무하게 포기하고 만다. ‘그냥 끊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연 실패의 원인이 된다. 흡연자들은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보다 강한 마약성 물질인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의지로 빠져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금연에 실패한 많은 흡연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금연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과 누구는 이래서 담배를 피워야 하고, 누구는 이래서 금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며 흡연에 대한 자기합리화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흡연자들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다. 흡연자들의 변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금연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사라지고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및 니코틴 금연보조제, 금연약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행

되었다. 우선 금연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을 방문해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한다.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을 받은 후에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금연치료 및 금연보조제가 전액 무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도 지급한다.

흡연자들은 금연이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흡연의 동기, 금연을 방해하는 요인, 금연의 의지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금연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흡연자 개개인에 맞추어 개별화된 금연치료가 필요하다.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금연치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들의 대다수는 흡연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흡연을 하면 암이나 심혈관질환이 몇 배 더 발생한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도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해야만 한다. 금연을 방해하던 많은 이유가 이번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솔직해져야 한다. ‘난, 담배에 중독됐어요’ ‘난, 흡연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인 금연 사업으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단순해 보이는 담배 한 개비 안에는 금연을 방해하기 위해 수십 년을 두고 발전되어 온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감추어져 있다.

그런 과학기술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이 틀림없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금연 중에 발생하는 중독 및 금단증상 해결이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재흡연을 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금연 성공으로 가는 길에 금연클리닉이 당신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혼자 금연을 시도한 경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흡연자는 성공률이 4~6배 정도 높다는 것을 명심하자. 



글 **임수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

## 중년 남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통풍’

통풍(痛風, gout)은 요산 나트륨(monosodium urate)의 결정이 관절 주위 및 연부조직에 침착되어 관절에 극심한 염증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체내 요산량 증가와 요산혈증(hyperuricemia)이 생겨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 심한 급성 염증성 관절염을 일으켜 환자는 극심한 발작성 관절통을 느끼게 된다.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로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된 날카로운 형태의 요산결정은 인대 파열을 초래할 수 있고, 압박에 의해 피부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통풍의 주요 증상으로는 해당 관절 부위가 붓고 발적(급성염증 시에 나타나는 징후의 하나로, 국소의 소동맥, 모세혈관의 충혈에 의해서 피부 및 점막이 빨간빛을 띠는 것)되며, 후끈거리고 열이 나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빨갈게 변한다. 환부 표면의 피부 표피층이 벗겨지기도 한다. 또 찌르는 듯한 욱신거림 등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잘 나타나며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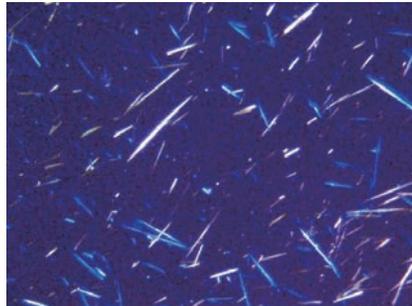
급성 통풍 발작의 경우는 증상 기간이 짧으면 일주일, 심하면 한 달 정도 지속된다.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남자의 엄지발가락에서 제일 흔하게 발병하지만, 다른 부위(팔, 다리 모든 관절)에도 생기며 여자도 발병할 수 있다. 혈액 속에 요산수치가 장기간 높게 올라가면 각 관절 외에도 콩팥, 방광 등에 요산이 침착되며 콩팥에 요산 결석이 생길 수 있다.

통풍 진단은 관절액을 주사기로 뽑아 활액 내의 다핵백혈구 속의 요산 결정체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진단한다. 성인 남성의 경우 혈액 내 요산 수치가 420 μmol/L(7.0 mg/dL) 이상이면 보통 비정상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수



〈그림 1〉 통풍은 엄지발가락에서 많이 생긴다



〈그림 2〉 현미경으로 관찰한 관절액 내 요산결정체

치보다 높다 하여 누구나 통풍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2/3는 정상범위의 요산범위에서 발병한다.

증상이 없는 고요산혈증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요산혈증을 가진 사람의 15~20%에서는 통풍이 발생한다. 통풍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안정을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급성 통풍은 콜치신,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소량의 콜치신을 매일 복용하면 급성 통풍 발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보통 3~6개월간 사용하게 된다. 이 방법은 급성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 쌓인 요산결정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급성 통풍처럼 경고증상 없이 연골과 뼈의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풍 치료 중에는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만성기에는 항고요산혈증 약물을 이용하여 고요산혈증을 조절하면 요산이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중 요산농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약물은 알로퓨리놀(allopurinol),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등의 요산배설촉진제가 주로 사용된다.

통풍 환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음식 조절도 병행해야 한다. 즉, 요산이 들어 있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요산 배출을 쉽게 하여 혈액 내 요산수치를 낮춰야 한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술, 특히 맥주는 금하는 것이 좋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이가 사랑하는 치맥(치킨과 맥주)은 통풍에 가장 좋지 않은 음식 메뉴이다. 요산은 대변, 소변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장애가 없다면 물을 많이 마셔 소변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글 주재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경과 교수

# 몸이 기억한다? 반복이 만드는 ‘절차기억’

수영이나 자전거 타는 법은 한번 배워 두면 평생 기억된다. 또한 키보드를 보고 치지 않아도 빠른 속도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도 막힘없이 자판을 누른다. 마치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듯한 현상이다. 이는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 실제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순한 손의 동작은 어떻게 기억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억의 분류는 기억이 유지되는 기간에 따른 분류다. 3개의 유형 즉 감각 기억(sensory memory),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이다.

감각 기억(sensory memory)은 어떤 대상이 지각된 최초의 순간에 거의 기억된다. 감각영역에서 이러한 정보의 일부는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이라고 하는 감각적 저장(sensory store)을 수행한다. 단지 수 밀리 초에서 수 초까지만 기억을 유지하며, 단기 기억은 수 초에서 수 분까지 기억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억의 저장은 대부분 아주 제한된 용량과 기간만 유지되는 반면,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은 수일에서 수년까지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기억은 기억 모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명시적 기억(explicit memory)과 암묵적 기억(implicit memory)으로 나뉜다.

암묵적 기억의 일종인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운동기능(motor skills)으로도 알려졌고 특정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몸이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걷기, 이야기하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특정 작업을 담당한다. 절차기억이 담당하는 작업은 우리의 의식을 방해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음악가와 운동선수들은 이 절차기억을 통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절차기억은 언어의 사용에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문법과 구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

절차기억은 피아노 연주, 스키, 스케이트, 야구, 수영, 운전,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의 활동에도 사용된다. 어떤 새로운 명시적인 기억도 할 필요 없이 반복(repetition)에 의해서만 주어진 작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집으로 가는 길은 명시적 기억에 의해 구체적으로 되살려져야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한번 이를 배웠었다면 절차기억에 의해 수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명시적 기억은 언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지만 절차기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간단하지만, 말로써 운전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절차기억은 뇌의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으며 반복된 신호는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를 강화하면서 만들어진다. 단기 기억 암호화 단계(short-term encoding stage)와 장기 기억 안정화 단계(long-term consolidation stage)를 거친다.

운동 과정 가운데 격근의 미세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소뇌(Cerebellum)와 학습된 운동 기능의 자동실행에 관여한다. 그 가운데 원하는 행동과 원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여 매끄럽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저핵(Basal Ganglia)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부연하자면 기억은 외부의 환경 자극을 저장하는 과정이다. 외부의 환경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그로 인해 일련의 세포군이 활성을 띄게 될 것이다. 이들 세포끼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단기 기억이 형성된다.

만약 지속적으로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세포끼리의 상호작용이 서서히 약해지고, 기억도 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자극이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들 세포군의 뉴런들의 활성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이들 뉴런 사이의 시냅스가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시냅스의 강화는 곧 장기 기억의 저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 과거의 자극과 유사한 자극이 다시 주어졌을 때 세포군 내의 일부 뉴런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포군 내의 뉴런들은 모두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뉴런끼리의 시냅스가 충분히 강화되어 있을 경우는, 일부 뉴런의 활성화만으로도 전체 세포군의 뉴런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의 자극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고, 이것이 곧 기억으로 출력된다. 

## 지역 주민 위한 풀뿌리의료, 의사로서 더없이 큰 보람 느껴

박찬욱 서대전속편한내과 원장, '의사는 환자로부터 의미를 찾아야 한다'



'말은 제주로, 돈은 강남으로'이라는 말마따나 서울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계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서울과 다른 지방과의 심각한 의료 격차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레지스탕스가 있다. 자신의 고향에서 풀뿌리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박찬욱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가 말하는 의사의 사명, 그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본다.

**땀땀하게 중양 의학을 등지다**

순천향의대 3회 졸업생인 박찬욱 원장은 현재 자신의 고향인 대전광역시에서 동문인 구현철 원장과 함께 소화기내과전문병원인 '서대전속편한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서대전속편한내과는 2010년 현재 위치인 중구 문화동으로 확장·이전, 올해로 개원 16주년을 맞이했다. 참고로 속편한내과는 전국 20여 개 지점을 가진 내과전문병원이다.

개원 전까지 박 원장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했다. 소위 말하는 '중양의학'에 몸담고 있었다. 그런 그가 고향에서 개원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대전이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 특히 의료 분야에서 서울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많은 병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수시로 문을 닫는 탓에 주민들이 꾸준히 믿고 다닐 병원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죠. 이에 작지만 제 재능을 살려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무엇보다 믿고 오래도록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마음에 개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더 적성에 맞았던 것도 한 이유였구요.”

박 원장은 2010년 이전 당시 사재를 털어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소화기 내시경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자신의 강점에 맞춰 최신 내시경 시설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중소 병원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근무했던 시간 역시 지금의 박 원장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각양각색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치료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환자를 위한 그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되돌아왔다. 지난 2014년 열린 '제7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에서 위내시경 부문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듯 환자를 우선하는 박 원장의 의료신념은 순천향의대 은사인 심찬석·김선주 교수의 영향이 크다. 평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해온 순천향 교수들의 가르침이 대를 이어 지역 곳곳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초창기 순천향의대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외진 곳에 덩그러니 지어진 작은 학교 건물과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 전부였지만 교수님들과 동문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현재 순천향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게 지식보다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여러 은사님들에게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무엇보다 믿고 오래도록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마음에 개원을 결정했습니다.”

**환자만을 생각하는 '좋은 의사' 될 것**

박 원장의 학창시절은 '공부'와 '동문'이란 두 단어로 압축된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눈두렁 한복판에 학교가 위치한 까닭에 별다른 유흥거리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공부가 전부였다. 가끔 마음 맞는 동문들과 함께 신창 시내에서 막걸리를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일탈이었다고 하니 그리 신명나는 대학생살을 누렸다고 할 수는 없을 터다. 무엇보다 초기 졸업생인 자신들의 행보에 따라 순천향 후배들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생각에 더욱 악착같이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처럼 무언가에 열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 말고는 할 것도, 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공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순천향 동문들이 제법 인정받는 위치에서 좋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뿌듯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순천향 정신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박 원장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천향 동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 없이 진료와 시술, 수술을 병행하는 것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만의 배려다.

“의사로서 살아온 지 어느새 3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가요. 어느 날 문득 '나는 좋은 의사였나'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물론 환자를 대할 때, 늘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세운 목표가 바로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을 정진해도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좋은 동네 의사 아저씨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 SCH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 12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및 사은회 개최



순천향의과대학 12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일시 : 2015. 11. 21(토) 18:00~22:00 장소 : 다담에스호텔 서울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팔래스 호텔 에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12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및 사은회가 열렸다. 서기현 기대표의 소감과 은사님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순천향 대학의 발전된 모습과 의과대학의 중요성, 순천향의생명연구원이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받아 더 좋은 대학원생들과 인재들이 모여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영홍 동창회장은 순천향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주위 동료, 선·후배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순천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따뜻한 봉사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12기 동문들은 20주년을 기념하여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9천만 원을 기부했다.

## 본과2학년 임상실습 진입식 축하



이영홍 동창회장은 2015년 12월 10일 서울병원 향설의학관에서 열린 본과2학년 임상실습 진입식에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홍 동창회장을 비롯해 김선주 의대학장, 최태윤 부학장, 김진국 교육부장

이 함께 참석했다. 순천향의대 동창회에서는 가운 한 벌 비용을 매년 지원해 왔다. 이번 진입식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USB도 함께 지원하는 등 총 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2015년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19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열렸다.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며 11대 집행부가 진행한 사업을 되돌아보고 2016년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1대 동창회 1년 활동 보고, 2015동문회합대회 경비내역 보고, 동창회장 인사에 이은 안건토의에서는 동창회 법인화 추진에 대한 내용과 2016년 3월 12일에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또한 모임장소 이동과 관련된 실무 토론,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위원회 구성, 2016 동문회합대회 '2016홀름밍데이'의 9월 일정 확정, 재학생 선택 실습 시 동창회와 연계하여 동문병원에서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동창회 행사에 기대표 및 지역동기회 임원들의 도움 등 다양한 안건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회장 이영홍(3), 자문위원 안무영(1), 감사 원종호(1) 이광석(2), 기대표 조진영(2), 전임회장 홍기연(2), 순천향장학이사 오주환(2), 기대표 이근우(3), 부회장 윤석환(3) 이상한(3), 사무총장 신응진(6), 대외협력이사 서광원(6), 학술정책이사 탁민성(6), 여성부회장 김귀숙(7), 지역이사 박현서(7), 기획이사 임훈(8), 당면직이사 최교창(8), 위원 장재영(10), 조직이사 차장규(11), 총무단 강기훈(12), 재무이사 허성모(18), 사무실장 SCH



클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 적색육, 가공육으로 인한 발암 위험 낮추는 식품은?

가공육·적색육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낮춰주는 최고의 식품은 무엇일까?

국내외 의료계·학계에선 우유·김치·레드와인을 추천한다. 우유가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유가 '칼슘의 왕'이기 때문이다. 칼슘은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로 꼽힌다. 우유 외에 멸치·김치·두부·무청·요구르트·달걀·파·미역 등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보고서에서 칼슘을 섭취하면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우유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즐겨 먹으면 암·노화 등을 일으키는 니트로소아민이나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공육·적색육 등에 풍부한 헴철(heme iron)은 빈혈 예방을 돕는 성분이지만 육류 등 단백질 식품의 질소 화합물과 반응해 니트로소아민이나 과산화 지질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트로소아민은 일부 가공육의 발색제(식품첨가물의 일종)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등 아질산염과 2급 아민류가 반응하면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적색육을 많이 먹어 헴철 섭취량이 과다하면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헴철의 유해성을 경고한 바 있다.

김치의 암 예방 성분은 김치 유산균(식물성 유산균의 일종)을 비롯해

식이섬유·알리신(마늘의 냄새 성분)·셀레늄·글루코시놀레이트·시니그린·인돌류·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하다. 특히 김치를 즐겨 먹으면 장내(腸內) 염증은 물론 암의 발진·전이 과정을 억제시킬 수 있다. 김치에 든 유산균은 대장암 예방은 물론 초기 대장암부터 진행 암까지 억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미생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비타민 C·폴리페놀·칼슘 등 최근 IARC가 가공육·적색육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한 물질들이 모두 들어 있다. 특히 김치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생강 등에 풍부한 다양한 염증 억제 성분들도 가공육·적색육의 PAH·HCA 등 일부 발암 성분을 상쇄시킨다.

소시지 등 가공육의 '아킬레스건'인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라 국내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치 유산균이 배추에 든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질산염의 1/500 가량만 아질산염으로 변환), 아질산염 자체를 파괴시킨다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 채소·가공육 등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식품 중 아민이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생기는 데 김치엔 니트로소아민이 거의 없는 것도 김치 유산균 덕분이다.

WHO는 레스베라트롤·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레드와인도 가공육·적색육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으로 주목하고 있다. 

# 칸트가 '이등병의 편지' 들었다면, 뭐라 했을까

11명의 사상가와 만난 **가객 김광석**



김. 광. 석. 그 이름만으로도 짝하고 아련한 이들이 어디 한둘이라. 그의 음악을 들으며 학업의 무게와 사춘기의 방황을 견디던 학창 시절이, 그의 울림 넘치는 목소리와 진실 묻어내는 가사 속에서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버티던 청년들이 있었음이다.

쓰러진 이들은 '일어나'를 들으며 삶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서른 즈음에'를 따라 부르며 기울어가는 청춘의 한 자락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다. 수많은 부부들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눈물로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고단한 지난 시절과 삶의 분투를 위로받은 탓이다. 그렇듯 보통 사람들의 모질고 신산한 삶을 아름답고 처연한 멜로디와 가사로 걸어 올려 우리네 지친 영혼의 안식처로 다가온 김광석은 20년 전 1996년 1월 6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 살아남은 자들을 슬프게 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송 활동에는 관심도 없고 솔한 소극장 공연으로 팬을 만난 사람, 그 진정성 가득한 노랫말과 담백한 목소리로 우리를 웃고 울린 사람, 죽어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전설로 남은 사람이 바로 김광석이다.

그런 그가 돌아왔다. 그는 늘 있었지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철학으로! 익숙한 노래에 철학의 옷이 입혀졌다. 아니, 노래가 철학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대철학자들의 사상을 설명하고 이끄는 화두가 되었다. 애초부터 그가 삶을 노래하는 철학자였던 탓일까.

## 11명의 서양 사상가와 만난 김광석의 노래

문화철학자 김광식 교수가 쓴 <김광석과 철학하기>(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12가지 행복 철학)에서 철학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온 것이다.



# 김광석과 철학의 만남

내친 김에 그는 역사의 대철학자들이 자기 사상을 그의 노래 속에서 설명하고 변주하는 축제를 벌인다.

이 철학 파티의 설계자인 철학자 김광식이라는 이름부터가 김광석과 일종의 착시감을 낳는다는 점은 밀어두자. 사실 김광석은 삶의 애환과 통찰을 담은 일상적이지만 깊이 있는 노랫말로 이미 '노래하는 철학자'가 아니었던가! 관객 광석을 운명적으로 만난 철학자 광식은 그의 노래를 플레이어에 걸어 독자를 철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그것도 '행복을 위한 철학'으로.

그래서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김광석과 철학이 만나는 행복을 위한 철학콘서트'라고 불렀다. 이름만 들어도 이는 11명의 서양 사상이 김광석의 노래를 따라 '철학 콘서트'로 호명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리에서'와 더불어 '행복의 철학'을 말하고, 플라톤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나와 '이상의 철학'을 논한다. '쾌락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광석의 노래 '나무'를 타고 오며, '이성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석을 만나고, 흠이 '사랑했지만'을 불러 '의심의 철학'을 설파한다. 또한 칸트가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며 '비판의 철학'을 쓰는가 하면, 헤겔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자유의 철학'을 강의하자, 마르크스가 '타는 목마름으로' 이른바 '혁명의 철학'을 열창한다. 초인의 철학자 니체가 광석의 '슬픈 노래'를 부르길 마다하지 않는다.

나치와의 연루라는 아픔이 있는 하이데거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래하며 '죽음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롤스가 '그녀가 처음 울던 날'로 불려나와 '정의의 철학'을 논한다. 끝으로 철학자 김광식이 김광석의 노래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몸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김광석의 노래가 철학을 만나는 일, 즉 '김광석과 철학하기'는 초유의 시도다. 책의 출발지는 서울대와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저자가 여러 학기 강의한 내용이다. 광석의 노래를 통한 철학 강의를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끈 감동의 드라마였다고 한다.

저기에 KBS 2TV 'TV 특강'에서 '행복을 위한 철학 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새해 벽두에 1주일간 강연한 내용이 더해졌다. 책 곳곳에서 광석의 노래 외에도 다양한 영화나 신화 및 음악, 책과 이야기가 불려나와 풍성함을 더한다. 저자가 진짜배기 '문화 철학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수업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고민과 상담도 많이 포함되어 오늘

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괴로움과 삶의 단면이 '행복의 철학'으로 가는 계단에 세심하게 잘 포개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책은 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친구처럼 내 삶 속으로 들어와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철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급 '철학사용설명서'가 될 법하다.

혹은, 이 책 하나면 '철학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소리 대신, 광석이 노래하는 삶이 다름 아닌 우리네 삶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요한 길잡이나 화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좋을 법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삶이 철학의 출발점이고, 또한 바로 그러하기에 철학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유용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를 책 곳곳에서 제대로 풀어내서 보여준다.

'지식과 문화의 세계'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그 내공과 '지적 근육'의 두께와 무게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하지만 책은 재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철학이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노래하며 거리를 질주한 청년의 축제였던 '68혁명'의 슬로건을 빌어 독자에게 고한다. 어둡고 불안한 현실에 절망해 무릎 꿇지 말라고, "상상력에 권력을" 부여하고 "불가능을 상상하라"고, 그리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가라!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행복은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럴 수 없기에 저마다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 깨우침을 위한 방법에 이르는 길과 노력이 책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다. 책은 결국 '행복을 위한 콘서트'이고, 방법은 광석의 노래가 안내하는 철학이다.

노래와 철학, 쉬운 조합은 아니지만 흥미롭고 색다른 조합이다. 우리는 삶을 어루만지는 음악을 들으며 행복할 수 있다. 삶이 힘들어도, 아니 힘들기에 그렇다. 광석의 노래는 슬픔이 묻어나지만 진솔하게 삶을 읊조려 지친 이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위로와 행복도 함께 나눈다. 그렇다면 그의 노래가 길을 열어주는 '철학'을 통해서는 왜 아니겠는가.

〈김광석과 철학하기〉는 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으로 가는 철학'의 가능성을 유쾌하고 신나게 보여준다. 어두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행복의 철학으로 걷어내며 활짝 웃자고 한다. 행복의 문으로 이어진다면 철학이 달갑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석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행복 철학"의 안내도를 따라가는 일은 무엇보다 행복한 소풍이었다. '행복의 문'도 문이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산과 강으로 빚어 놓은 배경

# ‘회룡포 강변길’



2016년 병신년 새해에 선정된 ‘물길’의 여섯 번째 코스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350° 휘돌아 가면서 만든 육지 속의 섬인 회룡포 강변길이다. 회룡포(回龍浦)의 지명은 청룡과 황룡이 이곳에서 만나 승천하였는데 서로 휘감으며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이름답고 소박한 강변 마을이다. 작가와 사진작가가 선정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누구나 모두 찬사를 보내는 마을이기도 하다. 예능프로그램 ‘1박2일’과 드라마 ‘가을동화’에 나와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 모두에게 극찬을 받은 절경을 간직한 회룡포 전망대

회룡포와 함께 예천의 관광8경 중에 하나인 금당실 전통마을에서 하루를 묵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오늘의 출발점인 용주시비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한다. 회룡대가 있는 비룡산은 용이 나는 모양으로 해발 189m의 산이지만

알보고 오르면 큰코다친다.

첫 번째 고개까지는 나무들과 함께 건강한 공기를 마시며 멀리 바라보이는 풍광도 즐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오르는데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니 이 길의 슬픈 역사가 떠오른다. 천년 신라가 고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마지막 경순왕의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울며 걸었을 슬픈 길이다.

마지막 고개라고 생각되는 계단을 넘어 오르면 장안사가 우리를 반겨준다. 불교 용어로 지상낙원을 의미하는 장안(長安)사는 신라가 삼국통일 후에 세운 사찰이다. 북쪽의 금강산과 남쪽 부산 불광산의 장안사와 함께 3대 장안사 중에 하나로 용의 허리 부분이다. 휘돌아 오르는 용의 모습을 새겨 넣은 바위를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어본다. 마지막으로 200여 계단만 더 오르면 오늘의 목표인 회룡포 전망대이다. 계단 옆으로는 우리 눈에 익숙한 시와 시조들이 늘어서서 끝까지 힘내라고 응원해준다.

언덕 위에 다다르니 나란히 선 ‘사랑의 자물쇠’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언



인들이 번치 않을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며 이곳에 자물쇠를 채우면 사랑이 영원토록 유지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한다. 또 하나 사랑의 징표로 마을 건너 산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 하트(♥) 모양의 산이 있다.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산 사이에 있는 하트산의 정기를 받아 인연을 맺으면 백년해로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연인들이 이곳에 와서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고 하트산의 정기를 받는다면 사랑과 행복은 보증수표다. 전망대에 내려가 금빛 모래사장에 둘러싸인 회룡포 마을의 황홀한 풍광을 바라보니, 왜 이곳을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황금빛 모래와 어우러진 예쁜 추억을 만들어주는 뽕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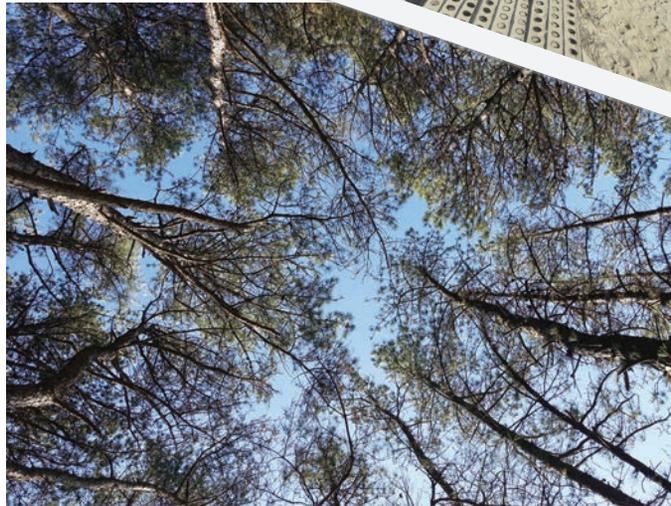
능선길을 따라 걷다보니 봉수대가 우뚝 서서 맵시를 자랑한다. 통신시설이 여의치 않은 옛날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다하고 지금은 외로이 남아 있는 모습이 쓸쓸하다.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다 보니 또 다른 전망대인 용포대가 우리를 반겨 맞아준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저마다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눈다. 용포대에서 내려와 마을 독방에 오르면 황금빛 모래사장의 갈대와 산의 풍광이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난다.

제2 뽕뽕다리 위에 색색의 옷을 입고 건너는 사람들의 활짝 웃는 표정을 보니 행복의 나라로 건너가는 다리임이 틀림없다. 구멍이 뚫린 공사용 철판으로 만들어졌다. 강물이 불으면 이 다리를 건널 때 물이 풍풍 솟는다고 하여 풍풍다리라고 불리었다가 뽕뽕다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어서 아쉽지만 기분을 느끼도록 구멍은 풍풍 나 있다.

내성천을 따라 마을을 반 바퀴 돌아보니 추억을 그대로 간직한 제1 뽕뽕다리가 멀리 보인다. 넘어질 듯 휘청거리는 구멍 뚫린 철판을 사뿐사뿐 밟으며 건너자니 개구쟁이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예천의 명물인 용궁면 순대국밥을 먹는 것으로 오늘의 걷기 일정을 마감한다. 

**건강 TIP**

노년층에서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걸어주면 사망의 위험성을 확실히 줄여준다. 한 연구 결과에서 노인이 걷기 운동을 2분을 더 할수록 사망률은 1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신체활동을 하면 노화의 속도도 줄일 수 있다.



## 순 천 향 대 학 교

### 서교일 총장, 호서지역총장협의회 회장 선출



서교일(56·사진) 순천향대 총장은 호서지역총장협의회 차기 수석회장으로 선출됐다. 순천향대는 17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2015 호서지역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서교일 총장이 차기 수석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6년부터 2년이다. 서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7대 순천향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수석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경찰공무원 과학수사요원에 법과학대학원 졸업생 11명 합격

순천향대는 최근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에 법과학대학원 3기 졸업생 중 16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은 지난 2011년에 개원해 2013년에 1기 졸업생을 배출,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에 모두 5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했다. 2기에는 14명이 지원해서 8명이 합격해 올해까지 꾸준한 성장세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 순천향대 광지원 학생 '대한민국인재상 수상'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 광지원 학생이 '2015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했다. 재활기구 등으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보유한 광지원(22·여) 학생은 2013년에는 뇌졸중 환자 손목·손가락의 기능유지 재활을 위한 압력센서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상지재활 훈련장치'에 이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게임 겸용 재활장치와 장력·손목 운동용 재활기구 등 7건을 특허출원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대한민국 인재상을 배출했다.

###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건강CEO과정 총동문회 "2015 송년의 밤" 행사



지난 12.4일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건강CEO과정 총동문회 "2015 송년의 밤" 행사가 (주)그래미 남중헌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은학원 김부성 이사장님, 순천향대 특임부총장 겸 이항재 원장님, 남중헌 총동문회장, 이영재 사무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총동문회 원우들이 참석했다.

## 순 천 향 대 학 교 중 앙 의 료 원

### 황경호 교수,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 취임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교수가 12월 23일, 제20대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황경호 교수는 부산대의대를 졸업하고, 순천향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쳤다. 1986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교수를 시작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원장,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을 거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을 2회 역임했다. 황경호 신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료원과 대학, 산하 병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최고의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에 노하우 전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 추진위원단과 보건부 관계자 총 6명을 대상으로 '2015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병원운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아동병원 건립을 앞두고

물품 장비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직접 배우기 위해 순천향을 찾았다. 의료기기 관리, 환자정보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창휘 명예교수

김창휘 순천향대 의대 명예교수(67)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에 임명됐다. 김원장은 경희대 의대를 졸업했고, 32년간 순천향대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방직중심의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각종 의료정책의 개성과 발전에 기여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인사

#### 2016년 1월 1일 자 발령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는 2015년 12월 29일 중앙의료원 및 산하병원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황경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새로 임명되었고, 이정재 기획조정실장(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연임됐다. 의과대학장은 최태윤 순천향대 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임명장을 받았다. 서울병원은 서유성 정형외과 교수와 변동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각각 병원장과 부원장에 연임됐다.

- **중앙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황경호 교수(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정재 교수(연임, 서울병원 산부인과)
-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장 최태윤 교수(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서울병원** 병원장 서유성(연임, 정형외과) / 부원장 변동원(연임, 내분비내과)
- **부천병원** 병원장 이문성(연임, 소화기내과) / 진료부원장 신승진(외과) 대외협력부원장 임수재(정형외과)
- **천안병원** 병원장 이문수(연임, 외과) / 부원장 박상홍(연임, 소화기내과)
- **구미병원** 병원장 박대경(연임, 외과) / 부원장 이태일(연임, 소화기내과)

**순 천 향 대 학 교 서 울 병 원**

**청소년 성 건강 증진을 위한 아름다움(womb) 협약**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10월 27일 보성여자고등학교, 보성여자중학교와 청소년들의 성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름다움(womb)주치의 협약식을 가졌다. 지역으로 지원체계 구축과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이임순 교수를 비롯한 산부인과 의사를 주축으로 보성여중고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과 여성건강 관련 상담, 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변전 설비 및 비상발전기 교체**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11월 18일 본관 지하 2층 전기실에서 본관 수·변전 설비 및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기존의 전기 공급방식을 220/127V에서 380/220V로 승압해 의료장비와 부대설비의 전기 공급능력을 개선했다. 수·변전 설비공사와 함께 시행한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는 기존의 발전용량 2,145KW에서 2,600KW로 증설해 비상시에 도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전원공급 체계를 갖췄다.

**지역 일꾼 113명 홍보대사 위촉**

서울병원은 12월 17일, 동은대강당에서 '제4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총 113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여성단체연합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로타리클럽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일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홍보대사들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병원에 전달하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자랑거리를 대내외에 알려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종 병원 내외 행사 참여와 지원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제11회 고객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성료**

서울병원은 12월 17일 오후 4시부터 교직원 식당에서 2015년도 교직원 송년회를 가졌다. 이어 저녁 6시 30분부터는 동은대강당에서 '제11회 고객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서유성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직원 송년회는 2015년도 회고영상 시청, 서유성 병원장의 송년사, 서교일 총장의 축사, 김성구 의료원장의 축배제의, 백진주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만찬 순으로 진행했다. '백세인생'이라는 곡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애란 가수가 특별 출연해 환자들에게 감짝 즐거움을 선사했다.

**외래 간호팀, 바자회 수익금 순천향나눔회에 기부**

서울병원 외래 간호팀(과장 박미영)은 12월 17일 18시 서별관 로비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수익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를 돕고 외래 간호팀의 1년을 결산하는 시간을 위해 마련했다. 1부에서는 화장품과 주류 등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300여 점을 판매했다. 이어 2부에서는 외래 직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외래 간호팀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순천향 나눔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화무역과 'My Health UP' 시스템 개발 협약**

서울병원은 12월 18일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대회의실에서 한화무역과 김진 솔루선인 My Health Up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My Health Up은 모바일을 이용해 검진 예약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3~4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다.



**서울병원 동정**

**조영신 응급의학과 교수, 서울시장 표창**  
조영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난 12월 2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서울시 구급지도협의회에서 서울시 표창장을 받았다. 2014년부터 용산구 소방서 구급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신 교수는 ▲119구급활동의 전문적인 의로직도와 자문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 역량 강화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 기여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안무영 교수, 용산구치매지원센터 5년 연속 우수**  
안무영 신경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용산구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가 평가한 '2015 서울시 치매관리사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구치매 지원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용산구치매지원센터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인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비롯해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부천병원 동정**

**진정용 교수(소아청소년과)**  
15.11.03~06 스페인 12th World Congress Perinatal Medicine에서 포스터 발표

**장기현 교수(영상의학과)**  
15.11.04~09 일본 ACCNR 학회 좌장

**이아름 교수(영상의학과)**  
15.11.04~09 일본 ACCNR에서 포스터 발표

**전찬홍 교수(류마티스내과)**  
15.11.06~11 미국 American College Rheumatology에서 포스터 발표

**사해선 교수(심장내과)**  
15.11.07~11 미국 American Heart Association-Scientific Sessions 2015에서 포스터 발표

**김상균 교수(소화기내과)**  
15.11.13 ~ 17 미국 AASLD에서 포스터 발표

**정한용 교수(정신건강의학과)**  
15.11.18~22 대만 WPAIC 2015에서 포스터 발표

**김벌테 교수(신경외과)**  
15.11.19~22 일본 The 31st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for Neuroendovascular Therapy에서 포스터 발표

**홍현숙 교수(영상의학과)**  
15.11.29~12.04 미국 북미방사선학회에서 구연, 포스터 발표

**이현 교수(영상의학과)**  
15.11.29~12.04 미국 북미방사선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정선혜 교수(영상의학과)**  
15.11.29~12.04 미국 북미방사선학회에서 구연 발표

**목지오 교수(내분비대사내과)**  
15.11.30~12.04 캐나다 세계당뇨병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이용화 교수(진단검사의학과)**  
15.12.02~04 인도네시아 TSIC 2015에서 포스터 발표

**김도진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15.12.02~05 말레이시아 APSR 2015에서 포스터 발표

**문중호 교수(소화기내과)**  
15.12.03~06 대만 아시아태평양소화기학회에서 구연 발표  
15.12.14~15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췌장학회에서 구연 발표

**홍수진 교수(소화기내과)**  
15.12.03~06 대만 아시아태평양소화기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고별민 교수(소화기내과)**  
15.12.03~06 대만 아시아태평양소화기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 NEWS

## 순 천 향 대 학 교 부 천 병 원

### 'KBS 교향악단 클로버 콘서트' 성료

부천병원은 11월 3일 향설대강당에서 '부천시민과 환우들을 위한 KBS교향악단 클로버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국내 최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KBS교향악단이 전통 클래식 명곡과 친근한 영화 OST 음악들을 들려줬다. 이날 콘서트는 부천시민과 환자 4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 부천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 2년 연속 의료 후원

부천병원이 지난 시즌에 이어 '2015-2016 KDB생명 여자프로농구' 시즌에도 부천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을 의료 후원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의료 후원 협약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천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 홈경기에 엠블런스 및 의료진을 파견해 흑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제15회 QI 경진대회 성료



부천병원이 12월 2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15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한 프로세스 변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이문성 병원장과 질 향상위원회 위원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친 10개 팀이 1년간 펼친 QI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시청각 자료를 통한 병원생활 안내의 효과분석'을 주제로 QI 활동을 펼친 '우리는 오동미' 팀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 봉사동아리 '나눔터', 사랑의 연탄 배달

부천병원 교직원 봉사 동아리 '나눔터' 회원들이 12월 12일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봉사'를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김민희 회장, 피부과 박영림 교수, 중앙혈액내과 박성규 교수 등 교직원 가족 120여 명이 참여해 형편이 어려운 지역 이웃에게 연탄 9,000장을 전달했다. 한편 2001년에 결성된 '나눔터'는 부천 솔안공원 내 노인정에서 매달 1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제3회 외국인환자 송년의 밤' 개최

부천병원은 12월 17일 종합건강검진센터 1층에서 '제3회 외국인 환자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외국인 환자 송년의 밤'은 먼 타국에서 연말을 보내게 된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 김형철 부원장, 국제진료센터 외국인 코디네이터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환아 위한 크리스마스 깜짝 이벤트

부천병원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환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의료진이 산타클로스 역할로 변신해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줬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속 만화가들의 재능기부로 환아들을 속 빼닮은 캐리커처를 그려 선물했다.

## 순 천 향 대 학 교 천 안 병 원

### 암센터, 개원의 대상 심포지엄 개최



천안병원 암센터(센터장 백우준)는 11월 20일 KTX 천안아산역 인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회의실에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암 관련 최신 지견을 개원의들과 나누기 위해 열리는 심포지엄은 2011년 암센터 개소 이후 매년 11월 열리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인에게 흔한 소화기암 가운데 위암과 대장암을 주제로 다뤘으며, 암을 직접 다루는 임상 교수들과 융합 및 중개연구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했다.

### 제4회 신생아 소생술 연수강좌 개최

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센터장 송준환)는 11월 30일 송원홀에서 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4회 신생아 소생술 연수강좌를 실시했다. 연수강좌는 신생아의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역 의료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신생아 소생술의 개요와 원리(송준환 센터장)'와 '약물투여와 특수상황(김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2개의 강연이 이어졌다. 저녁 7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좌에는 90명이 넘는 지역 의료진이 참석했다. 병원 측은 참석자들에게 간식과 연수평점 2점을 제공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자살유가족 돕는 심포지엄 개최

천안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이화영 교수)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11월 23일 송원홀에서 '자살유가족을 위한 심리부검과 자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지역 내 자살유가족들의 실태파악과 정신적 고통으로 2차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살유가족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지역 정신보건 전문기관을 비롯해 자살예방협의체와 자살예방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충남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전담

천안병원이 충청남도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교육 전담기관으로 나섰다. 최근 충청남도가 공모한 '2015년도 지역 맞춤형 119 처치 적절성 향상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천안병원은 그 첫 활동으로 12월 3일 천안서북소방서와 흥성소방서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했다. ▲병원전 술기 워크숍, ▲환자분류, 신체진찰 및 활력징후 측정 워크숍, ▲기도 관리 워크숍, ▲심전도 워크숍 등 4개의 워크숍으로 구성

된 교육은 응급의학과 교수진의 지도 아래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천안병원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구급대원들을 위해서 동영상 교재도 제작해 공급할 계획이다.

**결손가정 학생들 교복구입비 지원**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이번 선행에는 팀장단, 간호부 봉사모임 사랑회, 의료기사연합회, 사우회, 원무팀 등 다양한 모임 소속 교직원들이 선뜻 나서서 성금에 동참했다. 교직원들은 성금으로 교복교환 상품권 31매를 구입했으며, 12월 23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팀에 전달했다. 교직원들이 전달한 교복교환 상품권은 201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봉명동 거주 학생(중학생 11, 고등학생 20)의 교복구입에 사용된다. 교복교환 상품권은 스마트학생복 천안점에서 교복 1세트와 교환할 수 있다.

**순 천 향 대 학 교 구 미 병 원**

**‘정서학대, 햇살아이지원센터 학대아동예방 세미나**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를 주제로 11월 9일, 아동학대 예방세미나를 열었다. 정서학대의 사례와 정서학대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잘못된 훈육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2015 한국QA학회 구연발표 ‘우수상’ 쾌거**

지난 11월 4일에 QI경진대회가 있었다. 고객만족도 향상과 환자안전, 수익증대 등을 목표로 수술 전 정확한 환자 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증진활동, 혈액반납 및 폐기량 감소 개선활동 등 19팀의 구연과 포스터가 발표됐다. 한편 11월 19 ~ 20일, 창원에서 열린 ‘2015한국QA학회’에서 이태희 병리사가 발표한 ‘혈액반납 및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개선활동’이 구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재난대비·유괴예방 모의 훈련**

대형 재난 사고에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응급구조 활동을 점검, 평가하고자 11월 18일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개최했다. 또한 ‘안전한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영유아 유괴방지 모의훈련을 실시, 소아병동에서 발생한 영아유괴를 가정해 유괴 발생을 알리는 ‘코드핑크’ 방송과 출입구를 봉쇄, 수색 훈련을 했다.



**급성소아 중이염항생제 적정성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4년 연속 항생제 적게 쓰는 병원으로 평가됐다. 전국 유소아 급성중이염 평가기관 7610곳을 대상으로 실시, 전체평균 84.19%로 높은 처방률을 보인 가운데 구미병원은 평균보다 낮은 42%의 처방률을 나타냈다.



**연말 행사, 따뜻한 나눔과 희망 메시지 전달**

구미병원은 한 해를 보내며 다양한 행사로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14일부터 2주간 교직원이 그린 그림전시회 ‘아름다운 동행전’이 로비에서 열렸다. 24일은 현대정보와 함께 모든 내원객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하는 크리스마스 김찍이 벤트가 열렸다.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과 신비한 약초세상에서 재활환자 치료비로 1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SCH

- 장안수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15.12.03~06 말레이시아 APSR 2015에서 포스터 발표
- 윤진아 교수(중양혈액내과)  
15.12.18~21 싱가포르 ESMO ASIA 2015에서 포스터 발표



**천안병원 동정**

- 김성용 교수(외과)  
15.11.04~09 포르투갈 Advanced Breast Cancer 참석
- 양종우 교수(신장내과)  
15.11.04~10 미국 KIDNEY WEEK 2015에서 포스터 발표
- 이상철 교수(중양혈액내과)  
15.11.05~08 포르투갈 5th Trends in Head and Neck Oncology에서 포스터 발표
- 장성혜 교수(류마티스내과)  
15.11.05~13 미국 2015 ACR/ARHP에서 구연 발표
- 이정원, 김영기, 김기환 교수(응급의학과)  
15.11.07~10 대만 8th Asian Conference for Emergency Medicine에서 포스터 발표
- 윤석만 교수(신경외과)  
15.11.09~13 호주 WFITN 2015에서 구연 발표
- 김홍수, 전백규 교수(소화기내과)  
15.11.12~18 미국 LIVER MEETING 2015에서 포스터 발표
- 장은철 교수(직업환경의학과)  
15.11.13~18 미국 LIVER MEETING 2015에서 포스터 발표
- 정문선 교수(안과)  
15.11.13~20 미국 AAO 2015에서 구연 발표
- 문성택 교수(신부인과)  
15.11.16~21 미국 44th AAGL GLOBAL CONGRESS에서 포스터 발표
- 박종석, 정기진 교수(정형외과)  
15.11.23~28 이탈리아 ICMBHS에서 포스터 발표
- 김신영 교수(영상의학과)  
15.11.30~12.04 미국 RSNA 2015에서 포스터 발표
- 김상진, 류아정 교수(내분비내과)  
15.11.30~12.04 캐나다 IDF 2015에서 포스터 발표
- 김소영 교수(안과)  
15.11.26~27 중국 Annual meeting of China Women's and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에서 초청 강연
- 이태훈 교수(소화기내과)  
15.12.03~05 대만 APDW 2015 포스터 발표
- 이승진 교수(심장내과)  
15.12.04~05 중국 BIT's 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ardiology 2015에서 구연 발표
- 김도의 교수(신경과)  
15.12.04~10 미국 American Epilepsy Society 69th Annual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
- 이현주 교수(병리과)  
15.12.07~12 미국 2015 San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에서 포스터 발표



**구미병원 동정**

- 서미혜 교수(내분비대사내과)  
12.10~1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8th AFES congress 2015 포스터 발표
- 권경일 교수(신경과)  
12.7~11 이탈리아 밀라노 파킨슨병학회 포스터 발표



Medical Science & Technology  
의약품 유통전문기업  
**동양MST**

사람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선도합니다.



DONG YANG  
MST

株式會社 東洋 MST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38(한남동)  
전화: 02)794-7011 팩스: 02)797-8080

# Letter of Thanks

명품 화장품 에스티로더 회사의 한국지사 대표(필리핀인)가  
게실염으로 서울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케어를 잘해준 외과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감사편지입니다.

Greetings from Manila, Philippines!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내는 인사

Having several foreign patients at the International Clinic, I hope you still remember me - Gaile Cacal, Estee Lauder employee who's based in Manila, PH, taken in by Soon Chun Hyang as emergency case of Diverticulitis last November 5, and operated November 6. I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last November 25, had my follow-up check-up with Dr. Kim last December 1, and was allowed to fly back home December 2, and I'm so happy to be home.

많은 외국인 환자들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닐라를 기반으로 한 Estee Lauder(화장품)의 대표 Gaile Cacal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게실염으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에 수술을 받고 25일에 퇴원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김재준 교수님이 진료를 해주었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뒤 필리핀 저의 집으로 12월 2일에 돌아왔습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you and Dr Kim Jae Joon for making sure that I was well taken care of throughout my confinement at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I will always be indebted to both of you. Likewise, my appreciation to the junior doctors, and the rest of the nurses assigned at the 6th floor of the Main Hospital who've handled my case, for the admirable medical care I've received for the span of 20 days. They will always be remembered.

저를 치료해 주셨던 김재준 교수님과 이하 직원들 그리고 입원했던 병동 담당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입원해 있는 20일 동안 받았던 최고의 의료 서비스는 저에게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I know that providing medical care is part of their job, but among the doctors, nurses and staff that handled me, I would like to give special commendation to the following:

비록 그분들의 직무의 일부일지라도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저를 돌봐주신 다른 직원 분들에게 모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Dr Lee Ji Keun** he was one of the junior doctors assigned to my case, and has diligently monitored me throughout my road to recovery. Initially, portion of my wound was not healing well, and the healing process that I have go through under his care (I dread every wound dressing session!) was painful but necessary. He has been compassionate throughout my healing process.

His presence made me feel secured at all times, and his genuine kindness made my 20-days confinement in a foreign hospital comfortable.

이직근 의사 선생님은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담당하여 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초기에는 상처가 낫지 않아 소독하는 과정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 이직근 선생님이 보여주신 배려와 친절 덕분에 입원하는 20일 동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RN Yoo Su Ji** My favorite nurse ever! :) Like all nurses in the 6th floor, she struggles to complete her english sentence mixing it with korean words. But despite that, she placed extra effort to communicate with me to make sure that I clearly get her message. I'm just part of her regular routine as she performs her nurses' duty, but as days go by (and as a Human Resources practitioner), I cannot help but compare her with others. It is innate to RN Sulji to be caring and friendly to all patients. She remembers preferences of the patient, and managed this accordingly. My personal experience was when I had my wound re-sutured and I was continuously CRYING in pain (pain control have lapsed its effect at 2AM, and I was waiting for the next shot), RN Sulji sat by my bedside, held my hand and comforted me. Her english words might be limited at that moment, but the sincerity of her gesture goes beyond words.

(제가 가장 좋아했던)유수지 간호사 선생님! 병동 6층에 있던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도 유 간호사 선생님과 같이 한국말을 섞어가며 서툰 영어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임무 중 하나였겠지만, 의사소통을 위하여 애쓰셨던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그분의 노력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 너무 아파서 계속 울면서 새벽 2시까지 진통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유 간호사 선생님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저의 손을 잡아주고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언어 장벽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분의 손짓과 제스처는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을 전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RN Han Na Bin** In my 20 days confinement, RN Na Bin happens to be one of the most hardworking nurse I saw in the 6th floor. There were times that I've noticed that she takes long working shifts, and appears to be extremely tired, but always-always, she managed to break a smile while doing her routine duty. My observation, while nurses move around automatically and efficiently, sometimes tend to skip the "human

touch" as they do their duty. I have encountered nurses (just a few) who ignored me (probably because I don't speak Korean), or simply looked at me. My personal experience with RN Na Bin, she gives out a friendly smile and does small talks, despite language barrier. Sometimes, it only takes a smile to comfort a patient.

한나빈 간호사 선생님, 20일간의 재원 기간 동안, 제가 본 병동 6층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때때로 긴 근무 시간에 매우 힘들어 보였지만,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때로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만 환자들을 대하거나 아마도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사무적으로 대했던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향한 미소와 친절, 배려를 보여주시는 한나빈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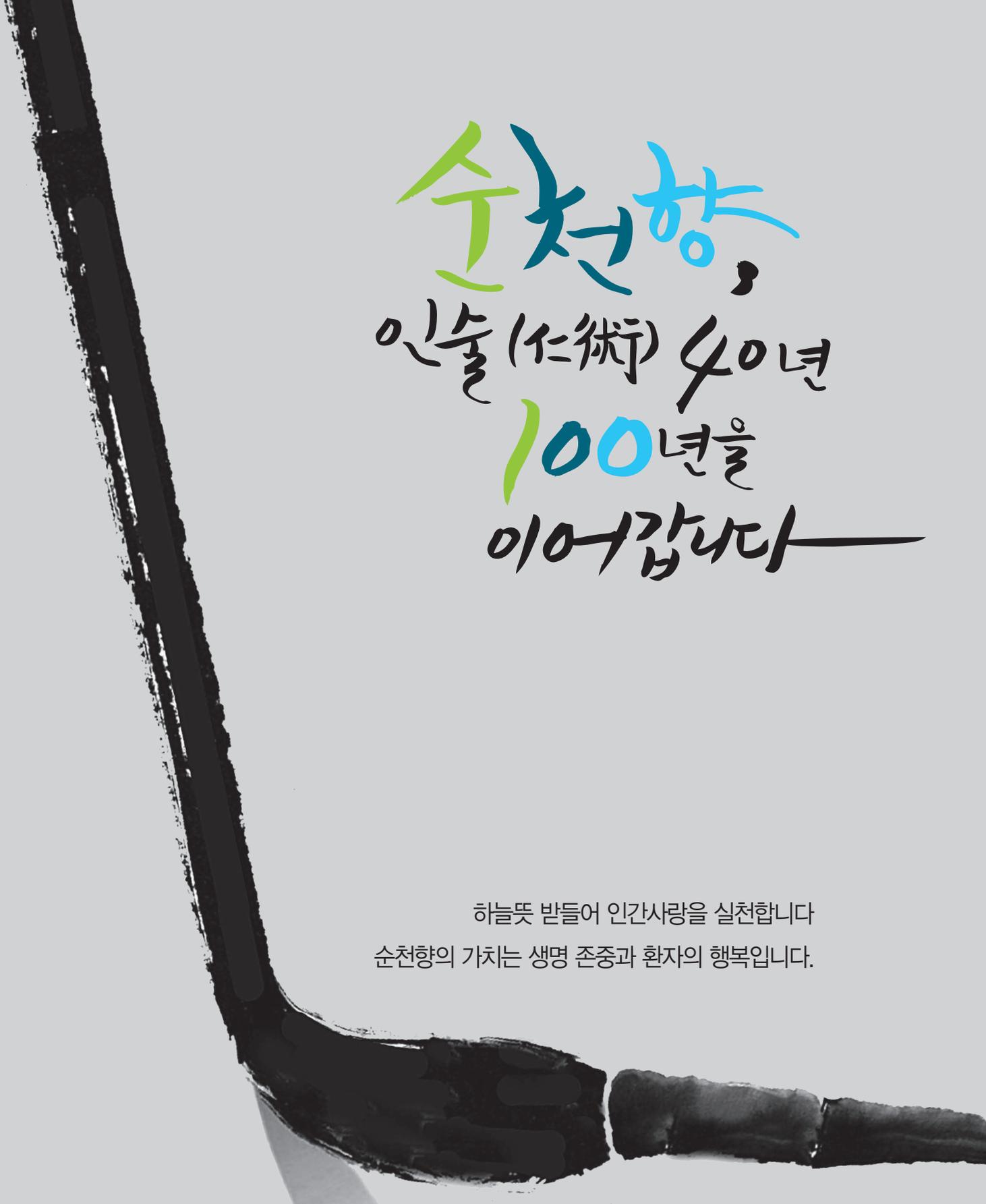
I know my letter happens to be very long, but I want to acknowledge the four(4) personalities who have made my hospital confinement significant. As a foreigner, it was difficult for me to cope with my environment, but these 4 people created a comfortable temporary haven for me. I will forever be beholden by your professional team for ensuring that I get the best care, so I can fly back home and see my loved ones.

편지 내용이 다소 길었지만, 저의 재원기간 동안 돌봐주신 4명의 선생님들에 대하여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하여 대처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 4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준 4분 선생님의 친절환 서비스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As soon as I landed in Manila, I've set a schedule with my doctor (Internal Medicine/ Gastroenterologist), and he gave me my clearance to resume office work on the 21st of December. I'll be meeting with my doctors again on January 2016 for medical testing prior to my 2nd operation due February (3rd month). I plan to visit Seoul again, or if by chance I get to go for another business trip to Seoul, I hope I can visit Soon Chun Hyang to see you all soon.

마닐라에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하여, 제 주치의를 만났고, 12월 21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두 번째 수술 스케줄을 위해, 먼저 2016년 1월에 다시 주치의를 만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출장을 서울로 가게 되거나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 Warmest regards,



순천향,  
인술(仁術) 40년  
100년을  
이어갑니다

하늘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순천향대학교중양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http://www.schmc.ac.kr>



서울병원:02)709-9114



부천병원:032)621-5114



천안병원:041)570-2114



구미병원:054)468-9114